

文學碩士 學位論文

統一新羅時代 雙塔 研究
-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李 準 浩

2006年 12月

統一新羅時代 雙塔 研究

-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李 康 根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李 準 浩

李準浩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6年 12月

- 目 次 -

| | |
|------------------------------|----|
| I. 序論 | 1 |
| 1. 연구목적 | 1 |
| 2. 문제제기 | 2 |
| 3. 연구방법 | 3 |
| II. 雙塔의 東·西배치와 浮彫像의 關係 | 4 |
| III. 新羅의 龍信仰 | 7 |
| 1. 왕족의 탄생과 죽음 | 8 |
| 2. 징후암시 | 9 |
| IV. 新羅의 護國思想 | 11 |
| 1. 황룡사 9층 목탑 건립배경 | 11 |
| V. 文武大王과 護國思想 | 15 |
| VI. 感恩寺 가람구조와 民俗 | 16 |
| VII. 新羅의 西岳 | 19 |

| | |
|--------------------|----|
| VIII. 莊嚴斗 信仰的 意義 | 23 |
| IX. 雙塔 浮彫像의 比較와 實例 | 24 |
| X. 結論 | 36 |

- 圖 板 目 錄 -

圖 1. 四天王寺址

圖 2. 망덕사지

圖 3. 문무왕릉 전경

圖 4. 仙桃山 전경

圖 5. 雙身佛

圖 6. 무열왕릉

圖 7. 용두 보당

圖 8. 龍

圖 9. 알영정

圖 10. 황룡사 9층 목탑지

圖 11. 황룡사 전경

圖 12. 황룡사 9층 목탑 복원도

圖 13. 感恩寺

圖 14. 감은사 금당구조

圖 15. 금당지하(발굴)

圖 16. 利見臺

圖 17. 무열왕이수

圖 18. 仙桃山城

圖 19. 阿彌陀佛像

- 圖 20. 아미타여래입상 복원도
- 圖 21. 중국 天山 전경
- 圖 22. 선도산 제사유적
- 圖 23. 대형고분 분포도
- 圖 24. 왕릉
- 圖 25. 서악동고분 유적지도
- 圖 26. 石窟庵전경
- 圖 27. 佛國寺전경
- 圖 28. 대릉원전경
- 圖 29. 탑 浮彫像 實例
- 圖 30. 석탑 세부명칭
- 圖 31. 감은사 삼층석탑 사리기(동탑).
- 圖 32. 감은사 삼층석탑 사리기(서탑)
- 圖 33. 다보탑
- 圖 34. 석가탑
- 圖 35. 장항리 5층석탑(1)
- 圖 36. 장항리 5층석탑(2)
- 圖 37. 천군리 삼층석탑
- 圖 38. 남산리 삼층석탑
- 圖 39. 원원사지 삼층석탑(동탑)
- 圖 40. 원원사지 삼층석탑(서탑)

圖 41. 송복사지 삼층석탑(동탑)—————

圖 42. 송복사지 삼층석탑(서탑)—————

- 表 目 録 -

| | |
|------------------------|----|
| 表 1. 경주지역 쌍탑 현황 | 24 |
| 表 2. 경주지역 쌍탑 분포도 | 25 |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印度에서 發生한 佛敎는 국가와 민족의 단위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각 국으로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4세기 무렵이다.

따라서 불교는 궁극적으로 단순한 宗教의 전래라는 일면적 차원을 뛰어넘는 것만 아니라 哲學, 文化, 思想 등이 혼재되어 전래된 것이기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다방면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사상들이 佛敎와 더불어 이 땅에 뿌리내리면서 우리는 다방면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였고, 그 중심에는 佛敎美術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불교미술은 우리 정신생활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러한 배경 속에는 수 많은 예술적인 작품들을 誕生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땅에 뿌리를 내린 불교는 時代의 흐름에 따라 변모되면서 佛의 힘을 빌려 적들을 봉쇄하려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護國的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다.¹⁾ 즉 나라를 지키고 王權을 守護하는 護國의 용도로 채용되면서 특히 新羅의 여러 說話는 守護神的 이미지를 강하게 느끼게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統一新羅時代에 등장한 雙塔의 繪적배치²⁾등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遺蹟을 통해 언급코자 한다. 물론 塔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舍利守護라는 개념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時代의 흐름에 따라 護國・護法등에 利用되기도 한다. 따라서 感恩寺의 雙塔 建立배경도 호국신앙과 결부시켜 볼 때, 東塔 건립배경에는 東海의 龍이된 文武王의 護國思想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며, 서탑은 極樂의 상징인 仙桃山을 염두에 두고 造成된 것으로 추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塔 표면에 彫刻된 浮彫像들을 살펴보면, 西塔에 비해 東塔의 像들이 훨씬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상

1) 즉 佛敎를 이용하여 정국을 타개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 塔에 대한 지금까지의 研究는 주로 樣式과 築造技法에 대해 언급되어 왔다. 특히 雙塔 출현에 대해 法華經의 二佛並坐 사상에 접목시켜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쌍탑 출현에 대한 언급은 가능한 미루기로 하고, 다만 塔의 橫的配置에 대한 思想的 검토에만 초점을 두기로 하겠다. 그리고 塔 표면장식에 대해 樣式的인 특징을 살펴, 東·西배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見解만 밝히도록 하겠다.

들이 東·西 배치(도판 1)에 있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나름대로 개진해보기로 하겠으며, 이 글이 統一新羅時代 雙塔 橫的配置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 문제제기

韓國佛教美術에 있어 그간의 연구 성과는 姜友邦, 金理那, 文明大, 張忠植, 秦弘燮, 등 수 많은 학자들에 의해 훌륭한 업적들이 쌓여 졌고, 그 연구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浮彫像과 구조적 축조방식에 관한 연구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정작 塔의 橫的 배치³⁾문제나 부조상의 비교·분석을 통한 思想的 배경에 대한 문제해결은 부족했던 것 같다. 최근까지는 주로 신앙적 측면과 기능, 양식적 특징, 舍利信仰에만 초점이 맞춰진 사례가 많았다. 물론 탑이라는 의미는 佛에 대한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지만 통일기부터 나타난 雙塔의 東·西 배치문제는 당시 建築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統一期 불교미술이 절정기에 달하면서 佛舍利에 대한 信仰心은 더욱 확대되면서 석탑표면에는 다양한 장식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선학들의 그간의 研究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樣式과 舍利信仰, 表面裝飾 등의 연구에만 치우쳐진 것 같고, 배치에 따른 신앙적 배경에 대한 연구 성과는 미약했던 것 같다. 이번 논고에서는 초기에 조성된 목탑들은 제외하였고, 護國信仰과 관련된 皇龍寺 木塔은 범주에 포함시켰다.⁴⁾ 나머지 목탑들은 조사해본 결과⁵⁾, 石塔에서 확인되고 있는 횡적배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판 2) 따라서 문제제기를 통하여 현재 경주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쌍탑 들을 추출해 文武王과 관련된 東海의 龍王信仰과)(도판 3 西岳의 淨土信仰(도판 4)이 쌍탑의 횡적배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덧붙여 탑에 조식된 浮彫像의 조형미를

3) 塔의 橫적배치와 특히 우리나라 쌍탑건립에 대한 연구성과는 부족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양식 위주로 진행되어왔었다.

4) 皇龍寺 9층 목탑은 신라 護國信仰의 상징물이다.

5) 四天王寺址 木塔과 망덕사는 조성당시 南·北방향으로 건립되었다.

살피 탑의 배치방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피기로 하겠다.

3. 研究方法

본 논고의 研究方法은 경주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雙塔 들을 추출하여 양탑의 配置와 浮彫像과의 관계를 동시에 언급하겠다.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듯이 皇龍寺 木塔을 제외한 나머지 목탑들은 횡적배치와는 대부분 관련성이 없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성과와 史料들을 모아 그 가운데 龍信仰과 極樂思想의 연계문제를 관련시켜보겠다. 현재까지 통일신라시대 쌍탑 연구논문은 몇 편이 발표되었다.⁶⁾

II. 東・西 配置와 浮彫像의 關係

統一新羅에 등장한 雙塔 배치는 당시 사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의미심장하다. 신라인에게 있어 東과 西에 대한 관념은 정신적 의식구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6) 현재까지 쌍탑 가람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張忠植, 『韓國의 塔』, 一志社, 1979, p. 114-115.

문명대, 『한국불교미술사』,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77, p. 267.

고유섭, 『한국탑과의 연구』, 동화출판사, 1987, p. 58.

김현준, 『寺刹, 그 속에 깃든 의미』, 흐름, 1988, p. 129.

한정희, 『한국 고대의 쌍탑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4.

盧相天, 〈新羅 中代 雙塔의 造成背景에 대한 考察〉, 慶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0. 등이 있다.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는 東에서 뜨고 西로 지듯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古代人들은 정신적 의식구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었다. 雙塔 등장에 따른 中國記錄을 잠시 살펴보면, 東晉 元帝時(317-322) 昌樂寺에⁷⁾ 최초로 쌍탑이 등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이며, 탑의 동·서 대칭에 따른 기록 역시 일종의 형의 불사⁸⁾가 등장하면서 사찰건물은 종대로, 그리고 횡축은 보조적인 것으로 균형대칭 구조를 채용한 예가 있다. 또한 隋·唐시기에 이르면 사원에 있어 塔이 中心이 되는 것이 점차 감소되고, 불전이 대다수 사원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에 현존하고 있는 최초의 木塔 건축은 山西省 五臺山の 南禪寺 正殿과 佛光寺 正殿인데, 두 사원의 전체적인 배치형태가 불전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리고 唐 나라대의 사원은 山門으로부터 개시되었지만, 縱軸을 따라서 전후로 여러 겹의 전각을 배열하여 불전을 주체로 구성하였고, 불전이 사원의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탑의 위치는 사원 양 측면의 탑원이 배치되거나, 혹은 불전 앞 좌우에 쌍탑을 조성하였다 한다. 『歷代名畫記』記錄에 673년 건립된 天福寺의 동탑원과 서탑원, 그리고 興唐寺의 동탑원⁹⁾ 등이 있었다는記錄이 남아 있다.¹⁰⁾

하지만 우리나라에 雙塔伽藍制가 어느 時期에 어떻게 造成되었다는 구체적인記錄은 찾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통일신라기에 唐 문화가 流入되면서 계승된 것으로¹¹⁾ 판단하고 있으나, 증거는 없다. 실례로서 679년 建立된 사천왕사와 望德寺, 그리고 현재 언급 중에 있는 682년 感恩寺가 대표적인 遺蹟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研究의 과제로 두기로 하겠다. 어쨌든 塔이라는 것의 개념은 舍利를 봉안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쌓은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의 목표는 오직 眞身舍利 봉안일 것이다. 하지만 이후 사리신앙은 시대적 상황이 급변하고, 특히 宗

7) 이 기록에 이렇게 전하고 있다. 당나라 조정의 장언원은 그의 《歷代名畫記》에 진군으로 있던 사상이 무창창락사에 동탑을 만들었고 재약사가 서탑을 조성한 것으로 한다.(한정희, 「한국고대 쌍탑의 연구」, 1981.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9. 참조)

8) 또한 記錄은 唐代의 사원은 산문으로부터 개시되었지만 종축을 따라서 전후 여러 겹의 전각을 배치하였다. 특히 불전이 사원의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塔의 위치는 사원 양 측면 탑원에 배치되거나 혹은 불전 앞의 좌우에 雙塔을 조성하였다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중국의 문헌과 고고학자료가 입증하고 있으며, 일본의 圓仁和尚의 《入唐求法巡禮記》가 뒷받침하고 있다.

9) 경주시,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 1997. p. 162.

10) 노상천, 앞의 논문 p. 6 참조.

11) 한정희, 앞의 논문 p. 12 참조.

敎的 동기와 연관을 지니면서 護國・護法・追福・祈福 등 圖識思想과도 밀접한 관계가 맺어진다. 이러한 관념에서 볼 때 東海를 軸으로 조성된 感恩寺 雙塔 發生은 필자의 판단으로는 舍利信仰이라기 보다는, 東塔의 경우 護國 龍이 된 文武王의 龍王信仰과 연계시켜 놓았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예는, 皇龍寺 木塔 建立 목적과도 부합되는 대목이다. 또 한 예로는 『法華經』에 묘사한 多寶와 釋迦 竝坐를 건축형식으로서 생동적으로 표현하였다는 說¹²⁾과, 4-7세기 무렵 中國・韓國・日本에서 널리 유행한 『維摩經』의 제9품이 中心이 되면서 쌍탑이 東西에 일직선상으로 양탑을 세웠다는 주장도¹³⁾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자의 내용에 무게를 두고자 하며, 雙塔과 雙身佛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¹⁴⁾(도판 5) 그렇다면 문제는 西向을 두고 造成한 배경에 대해 어떻게 해명 되어야 할까, 필자의 부족한 식견으로는 볼 때 서쪽은 신라인들의 마음의 고향인 極樂淨土이다.(도판 4참조) 新羅의 五岳,¹⁵⁾이 곳 仙桃山에는 父王(太宗武烈王)이 묻혀 있어(도판 6) 往生을 念願하는 記念碑的인 이미지로 보면 어떨까? 아무튼 塔은 舍利信仰을 전제로 두고 있지만 그간의 研究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塔의 方位 배치에 앞서 언급하였듯이 필자는 龍王信仰과 極樂思想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塔에 조식된 浮彫像들도 塔의 東・西배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12) 張忠植, 『韓國의 塔』, 一志社, 1989, p. 60.

13) 국립문화재연구소, 「삼국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보고서」, 2000, p. 91.

14) 쌍신불의 등장은 로마제국의 石彫刻과 花佩에서 그 유래를 찾고 있다. 이러한 신앙은 印度를 거쳐 우리나라에 樣式이 도입된 것은 통일신라기이다.

15) 新羅의 五岳을 살펴보면, 北岳은 聖山인 金剛山을 가르킨다. 이 山名은 『三國遺事』에 신라 국초 진한 육부 설화에 金剛山으로 등장하는 유명한 산이다. 신라건국 說話중에 六村 촌장이 모두 하늘에서 경주부근 산악에서 내려왔다. 그중 明覺山 교야촌장 虎珍이 이 金剛山에서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고, 알천 양산촌장 알령이 내려왔다는 瓢岩이 있다. 또한 불교 공인을 계기로 제공한 異次頓의 순교와 관련된 栢栗寺가 있고, 경덕왕 때 조성된 掘佛寺 四面 石佛像이, 그리고 東岳의 주인공인 脫解王陵과 숭신전이 있다. 그리고 中岳에는 狼山이 있다. 여기에는 朴赫居世의 誕生說話가 있는 楊山이 있고 선덕여왕릉과 수미산, 신라 제1의 호국 대가람인 四天王寺, 그리고 신문왕과 효소왕의 원당 사찰인 皇福寺, 唐의 융성을 비는 원찰인 望德寺가 있다. 또한 西岳은 경주 분지에 우뚝선 산으로 경상도 지리지에 동악, 북악과 함께 三名山이라고 전해지는데 이곳에 서왕모가 있다. 서왕모는 中國 古代 信仰 속에서 기이하면서 극히 중요한 女神이다. 인류를 창조하였고 죽음의 神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는 文武王의 父王인 무열왕릉을 비롯, 김인문 묘, 법흥왕릉, 진흥왕릉, 진지왕릉, 문흥왕릉, 김유신 흥무왕릉 등 크고 작은 무덤이 1백여기 이상이 있다. 말 그대로 西方淨土이다. 선도산의 정상 가까이에는 적군을 막기 위해 축조된 仙桃山城이 있다. 마지막으로 南岳에는 노천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南山이 있다. 각 계곡마다 100개가 넘는 절터가 있고, 조사된 遺蹟으로는 60이기 넘는 塔과 50여개의 마애불, 20여기의 환조불 등 우리 민족의 靈山이다.

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西塔에 비해 東塔에 장엄된 浮彫像들이 훨씬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시작과 마무리’라는 관점¹⁶⁾에 비춰볼 때 필자는 彫刻이 갖는 의미 또한 깊은 관련이 있으리라 이해하며,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어쨌든 塔의 橫的 배치문제는 전자에 언급된 文武王의 護國信仰과 極樂世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비약적이나 필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III. 新羅의 龍 信仰

龍¹⁷⁾은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聖獸(도판 7·8)로 알려져 왔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6) 세상의 모든 흐름이 반드시 원래의 원점을 향해 흘러가듯이, 三國을 統一한 文武王이 삼국통일로 정국은 안정시켰지만, 東海로 침입하는 倭軍을 막기 위해 죽어서 海龍이 되었다는 전설은 또 한번의 國家를 守護하겠다는 새로운 의미로 해석된다.

17) 龍은 水의 神이자, 상상의 동물이다. 물은 모든 人間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물질중의 하나이고, 인간의 生命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龍은 비를 내리게 하고, 물을 공급하며, 洪水를 일으키는 등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재하는 神이다. 용은 주로 바다와 호수, 하천, 연못, 우물을 비롯하여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이 산다. 용은 원래 印度神話에 등장하는 구룡이(산스크리트어 나가 Naga)이 있다. 그리고 佛教 傳說에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구름과 천둥, 비를 부리는 동물로 釋迦의 가르침을 守護하는 八代 龍王이었다고 한다. 이후 中國에 전해지면서 네 다리를 가진 거대한 구렁이의 모습에서 머리에는 사슴같은 뿔과 빛나는 눈, 촉수처럼 긴 혀를 가지게 된다. 중국인에게는 龍은 크고 작은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존재로 각인되어 그 크기를 황하 같은 거대한 河川에 비유됐고, 특히 皇帝나 현인은 용의 化身으로 비유되었다. 또한 용은 陰陽五行에서 용은 기린, 봉황은 현무와 함께 方位를 지키는 靈獸중 하나로 동쪽을 지킨다고 했다. 특히 용은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많은 불교 도상에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상서로운 動物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이는 장엄하고 신성한 능력이 있어 帝王의 象徴으로 인식되어 때로는 나라를 지키고 王權을 守護하는 護國神・護國龍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新羅 佛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나라를 지키고 佛法을 지키는 守護神의 역할로 주로 등장하게 된다. 그만큼 신라불교는 호국불교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현재 용의 출현과 관련된 『三國史記』新羅本紀 에만 13회에 걸친 記錄이 남아 있다.¹⁸⁾ 龍의 등장과 기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龍의 형상은 玉으로 만들어졌고 신석기말기 한국선사문화와 직결된 요령성에서 용이 장식된 玉이 發見되었다.¹⁹⁾ 中國人들은 고대사회에서는 같은 민족끼리 어떤 상징적인 動物을 숭상하는 이른바 토템을 가졌는데, 화하족인 중국 민족은 龍을 토템으로 삼았고 동이족인 한민족은 새를 토템으로 삼았다고 믿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龍이라는 동물의 모습은 아래에 전개될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佛教傳來 이전에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불교전래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명맥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 이전 文獻에 나타나는 龍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新羅王族의 誕生과 죽음

龍信仰의 초기 문헌 예는『三國遺事』 奇異 新羅始祖 赫居世王條에『신라의 사랑리에 있는 闕英이라는 우물(도판 9)에서 雞龍이 나타났는데 왼쪽 옆구리로부터 계집아이를 낳으니』²⁰⁾라고 하여 나타나는데 한편『三國史記』혁거세왕 5년 條에는

「혁거세왕 5년 봄 정월에 龍이 알영우물에 나타나 오른편 옆구리로 계집아이를 낳았다. 한 노파가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를 거두어 기르고 우물 이름으로써 이름을 지었다. 그가 자라매 얼굴이 덕스러우므로 始祖가 듣고 데려다가 王妃로 삼았더니 行

18) 김영옥, 『감은사 건축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63.

19) Nelson.S 1996. 「The Archaeology of North East China」. New York. p. 36-37

Guo, Da-shun, 1995. Hongshan and Related Cultures. In 「The Archaeology of North East China」, edited by Sarah M. Nelson, pp. 21-64.

20) 『三國遺事』, 혁거세왕 條.

實이 어질고 내조가 능하여 당시 사람들이 두 聖人이라고 일렀다.」²¹⁾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三國史記』 혁거세왕 60년 條에는

『가을 9월에 龍 두 마리가 金城 우물 속에 나타났다. 우레와 雨가 심하고 성의 南門에서 벼락이 쳤다』. 이어서 「61년 봄 거서간이 죽었다²²⁾」

유리왕조에서도 혁거세왕조에서와 마찬가지로

「33년 여름 4월에 龍이 나타나고 좀 있다가 소나기가 西北으로부터 몰려왔다」²³⁾고 전하고 다음해인 34년 10월에 왕이 죽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본 關英 부인과 赫居世, 유리왕조에 나타나는 「龍」이란 당시 신성하게 여기고 신비스럽게 여겼던 ‘탄생과 죽음’에 연관되는 神으로 간주된 듯하다. 이는 곧 誕生 주체의 신격화를 뒷받침해주는 정치적 역할로서도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土俗信仰 내지 民間의 信仰을 이용한 政治的 형태를 생각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과연 이러한 의도가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三國遺事』와 『三國史記』가 著述될 때에 造成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 시대에도 民間信仰 자체가 순수 신앙차원이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많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王權은 당시 祭政一致 시대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신라초기의 龍의 등장은 왕의 신권강화를 위해 王의 죽음과 誕生을 상징화 하였다. 그러나 초기 문헌에 나타나는 용의 의미는 점차 天災地變을 암시하는 象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라의 龍信仰은 佛法의 위력을 과시하는데 目的을 두었는데, 善德女王의 皇龍寺 9층 木塔(도판 8)은 이웃나라의 降伏과 九韓

21) 『三國史記』, 혁거세왕 條.

22) 『三國史記』, 혁거세왕 條.

23) 『三國史記』, 유리왕條.

의 來貢, 왕조의 영원이란 護國祈願에서 세워졌다. 唐兵의 내침을 물리치고 百濟 · 高句麗의 옛 땅을 굳게 통합한다는 思想에 기인하여 文武王이 四天王寺를 개창하였고, 죽어서도 護國龍이 되겠다는 文武王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다.

2. 장후암시

龍信仰의 양상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치지 않고 時代를 달리하면서 生死는 물론이지만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주는 상징매개체로서의 자리를 잡아 가는 듯한 변화를 보인다. 한편 하나의 동일한 信仰대상을 두고 그 상징성이 달라지는 것은 佛像에 대한 신앙의 변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佛像은 佛教의 主佛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점차 民間信仰에서 신봉하는 대상인 彌勒으로 통칭되어진다. 여기에서 彌勒은 불교에서 칭하는 미륵불과의 차별화를 갖는 대상이다. 즉 민간신앙에서 만들어낸 숭배물로 龍신앙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미추왕조에 의하면,

『미추왕 원년 봄 3월에는 대궐 동쪽 연못에 龍이 나타났다. 이어 왕의 죽음을 암시했던 용의 등장에서처럼 가을 7월에는 금성 서문에 불이 나서 人家 백여 호가 전소되었다라고 되어있다.

또 삼국사기 신라본기 자비왕조에,

『자비왕 4년 여름 4월에는 용이 금성의 우물 속에 나타났고, 5년 여름 5월에 위인이 성을 쳐부수고 들어와 사람 천 명을 사로 잡아갔다』고 되어있다.

이 기사에서도 역시 용의 등장 이후 나타나는 재난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²⁴⁾ 이렇듯 龍信仰 또는 龍의 등장이 왕의 생사와 관련되어 신라 초에 등장하다가 점점 용의 등장을 나타내는 기사는 보이지 않게 된다.

24) 『삼국사기』, 新羅本紀 자비왕條

즉 신라초기 미추왕조에 가서야 용이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王族의 生死가 아닌 國家의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용의 상징성이 변모한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용의 의미가 변모하여 나타나는데 까지 의 기간에는 그 역할을 하늘의 현상에 의지하는 記事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즉 하늘로부터의 자연현상(天信仰)의 차원으로 교체되는 모습을 문헌으로 엿볼 수 있다.

IV. 新羅의 護國思想

新羅佛敎의 護國的 기능을 해명함에 있어서는 花郎과 彌勒信仰과의 관계를 주목해야하나, 본 논고에서는 護國寺刹의 成立에 따른 내용만 논하기로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신라시대 대부분의 寺刹들이 國家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건립되었지만, 이 중에서도 護國寺刹이란 그 성립의 취지는 國家守護 내지 安寧을 위한 目的으로 건립된 寺刹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러한 護國·護法은 타 民族에 대한 모든 배타적 감정을 佛法이란 대명제로서 엮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신라의 護國思想은 진흥왕 때 이르러 호국사상과 王權 강화책으로써²⁵⁾ 사찰의 조형을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물이 皇龍寺 建築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진흥왕대에 용신앙과 관련된 民俗信仰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불교 수용 이전에 신라사회의 土着信仰 즉 巫俗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중 하나가 龍王信仰이다. 龍은 王의 生死를 의미하고 또한 國家의吉凶을 나타내주기도 한 신앙의 형태로 존재했었다. 이렇듯 佛敎가 수용되고 공인된 이후라 할지라도 신라사회는 巫俗이란 틀을 깨트리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당시 불교는 그들 민중적 종교적 관심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즉 관심사는 불교라기보다는 民俗信仰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신라민족사상의 상징적 표현이 황룡사대탑으로서 나타냈으며, 또 이 가람은 新羅護國佛敎의 청화라 할 것이다.

25) 오창현 「신라불교사찰에 나타난 무속사상」,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p. 22.

1. 皇龍寺 9층 木塔 건립배경

황룡사(도판 10·11)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敵國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護國 내지는 護法의 守護의 기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三國遺事』記錄에 의하면 자장이 당나라 정관 10년(636년) 唐에 유학하여 태화못가²⁶⁾를 지날 때 神人이 나타나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이웃나라들이 모해코자 하니 빨리 本國으로 돌아가야 한다. 황룡사의 護法龍이 바로 나의 맏아들이다. 梵王의 명령을 받고 가서 이 절을 호위하고 있으니 本國으로 돌아가 절 가운데 9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들이 降伏을 하고 九韓이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위가 길이 평안하리라」

라고 하였다. 이에 자장은 귀국하여 善德女王에게 탑 건립의 필요성을 건의 하였다. 자장이 王에게 탑을 건립할 것을 주장하는데 있어 그 동기와 주장의 의의가 모두 佛敎의 순수 신앙을 토대로 하지 않은 현실이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²⁷⁾ 王은 그 의견을 신하들에게 물어 百濟의 匠人 아버지를 초청하여 탑 건축을 시작하였다. 자장이 탑 건립을 주장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의견을 국가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처리하는 과정을 앞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新羅에서 佛敎의 비중이 인정된다는 것, 둘째는 국가운영에 불교를 순수신앙이 아닌 현실이익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탑 건축이 아무런 사건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처음 공사가 이루어지던 날에 공인의 꿈에 本國 百濟가 망하는 형상을 보고 공인은 의심하여 일손을 놓자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어둡더니 한 노승과 한 장사가 금전각에서 나와 그 기둥을 세운 후 그들이 어디로 사라져 보이지 아니하였다. 장인

26) 『삼국유사』, 제3 탑과 불상 제4(황룡사 9층탑편), p. 332.

27) 오창현, 앞의 논문 p. 24.

이 후회하고 탑을 완성하였다.

『三國遺事』에서는

「탑을 세운 후에 천지가 비로소 태평하고 三韓을 統一하였으니 어찌 이것이 탑의 영험이 아니리」

라고 덧붙이고 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이러한 경위를 거쳐 조성되기에 이른다. 이 경위를 통해서 보면 신령한 사람이 자장에게 나타나 그 연유로 만들어 진듯하나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三國遺事』 황룡사 9층탑 條에 보면 자장의 이야기와 함께 안홍이 지은 『동도성립기』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의 침범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니, 제 1층은 日本, 제2층 中國, 제3층 吳越, 제4층 托羅, 제5층 鷹遊, 제6층 靺鞨, 제7층 檀國, 제8층 女狄 제9층 濊貊이다. (도판 12참조)

여기서 제일 먼저 日本과 中國의 조복을 기원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당시의 국제관계에서 新羅의 적국은 어느 나라였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한편 이 내용은 9층 목탑이 세워진 것이 자장의 도당유학시절 神人에 의해 발원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 그 때에 가서 구체적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즉 자장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듯이 창건당시에는 탑과 金堂이 없었는데 후에 위의 연유를 통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건의 주된 목적은 護國的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황룡사 9층 목탑은 다른 이유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造成된 木塔은 불교적인 의미에서의 釋迦의 무덤이라는 의미를 많이 상실한 듯하다.

물론 불교가 中國에서 전래되면서부터 이미 釋迦의 무덤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있어왔지만 그 상징성의 존재는 유지되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탑을 조성하게 되는 연유가 안홍의『東都成立記』와 자장의 유학시절에 꿈에 나타난 神人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듯이 護國的인 성격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엿볼 수 있다. 자장과 신인의 대화를 보면, 황룡사 창건에 대한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 수용 이전의 황룡 즉 龍의 역할이 더욱 더 인간 친화적 이익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물론 王의 불사건립과 國家守護에 대한 면으로 나타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불교 수용 이전에 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土着信仰의 龍이 이 시기에는 神人이라는 매개체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수용 이전보다 오히려 더 民俗的인 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두 인용문을 보면 탑의 건립에 대한 연유를 불교적인 면에서 벗어 호국을 위한 직접적인 조성으로 그 건립 이유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탑의 建立이 황룡사 9층 목탑의 예에서 보듯이 현실이익적인 면으로 위기 대처의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곧 이것이 民俗이 지닌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약한 자의 기대고 싶은 대상을 탑으로 지정하고 탑의 건립으로 그 정성을 다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쪽이 비중이 중요시 되는지 생각해 볼만하다. 즉 형식적으로는 불교를 채택하고, 그 내용성으로는 護國의 의미를 채우는 듯한 모습이다.

위에서 皇龍寺 9층 木塔과 가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내용으로 보아 목탑이 일반적 사찰의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규모를 능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목탑이 지니고 있었던 사찰가람에서의 절대신앙 대상을 염두해 두고, 그 대상에 대한 숭배로 나라의 액운은 막고자 한 護國信仰 형태의 발현이라 하겠다.

따라서 필자는 統一期에 건립된 쌍탑배치의 원류를 황룡사 9층 목탑에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한다. 즉 당초 목탑건립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탑을 釋迦牟尼의 안식처라는 개념을 저버리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 건립했다는 점을 비춰 볼 때 이후 感恩寺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V . 文武大王과 護國精神

신라 제30대 문무대왕(?-681)은 太宗武烈王의 長子로 이름은 法敏이다. 어머니는 金씨 文明王后로서 蘇判 舒玄의 季女요 金庾信의 누이다. 그리고 王妃는 慈儀王后이니 波珍浪 善品の 딸이다²⁸⁾. 法敏은 용모가 단정하고 英特할 뿐만 아니라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 父王 武烈王의 총애를 받아 왔다. 660년 무열왕이 蘇定方과 함께 백제를 平定할 때 법민은 대공을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이해 승하한 父王의 代를 잇게 되었다.

『三國遺事』에 따르면 三國 중 국가로 뒤 늦게 성장한 新羅는 智證(500-514), 法興王(514-540)두 君主에 의하여 隆盛發展을 해가며 國基를 다진다.²⁹⁾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서는 拓境事業 등으로 漢水流域을 정복하여 三國統一의 기반을 다지고, 특히 花郎制度和 불교의 호국체제를 갖춘다.

그러나 661년 문무왕은 즉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國內外 여러 가지 문제를 解決해야 하는 급한 狀況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은 統一 이후 왜구들의 침입이 가장 관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感恩寺 앞 바다는 당시 交通의 要衝地였고, 이곳에서 토함산만 넘으면 바로 新羅의 王京地域으로 通하게 되므로 항상 왜구의 침입과 그네들의 노략질이 우려되던 것이었다. 특히 문무왕은 護國의 신념으로 鎮國寺란 절을 짓게 되었는데, 이는 동해의 근심을 없애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확고한 호국신념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대왕은 또한 印度의 장례법에 따라 국왕 최초로 火葬하여 동해의 巨巖에 장사를 지냄과 동시에 평소 염원 했던 護國龍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28) 『三國史記』, 卷 第六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 上.

29) 『三國遺事』, 卷2 紀異2 文虎王法敏 條.

VI. 感恩寺의 가람구조와 民俗

感恩寺(도판 13)는 文武王의 용신앙과 호국신앙이 잘 표출된 寺刹이라고 할 수 있다. 감은사의 巫俗的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그 주체인 문무왕 관련 자료와 감은사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문무왕은 太宗武烈王의 아들로 父王과 함께 百濟를 멸망시키는 등 삼국 통일의 기수였다. 그는 삼국통일을 성취하는 데에는 물론 죽어서까지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생애를 마쳤다.『三國遺事』문무왕 편에 다음과 같이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내가 죽은 뒤에는 원컨대 나라를 守護하는 큰 龍이 되어 佛教를 떠받들고 國家를 보위하리라』³⁰⁾

이처럼 文武王은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이 확고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이 표출된 형태가 곧 감은사이다. 위와 같은 기록을 통해 문무왕의 호국신앙의 저변에는 불교와 龍信仰, 그리고 금당구조를 살펴보면(도판 14) 이해가 빠를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감은사는 문무왕의 발원으로 시작되었으나 完成을 보지 못하고 그 아들인 神文王이 父王의 유지를 받들어 完工한 大刹이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文武王은 海龍이 되어 동해에서 왜적의 침입을 막고자 東海에 장사지낼 것을 유언하였다. 이에 뜻을 받들어 동해에 장사 지내고 父王의 恩惠에 감사하는 뜻으로 감은사를 하였다고 한다. 감은사의 금당구조는 금당지하에 지하통로(도판 15)를 설치하여 그 통로가 동해바다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해룡이 된 문무왕의 안식처로써 설계되어 있다³¹⁾. 즉 동해와 金堂을 오가는 水路를 개설해 龍이 드나들도록 설계한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자료로 萬波息笛 條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萬波息笛을 다음과 같이 일컫고 있다.(도판 16)

30) 『三國遺事』, 文武王 法敏 條.

31) 조유진, 「감은사지 발굴조사 개요」, 『古文化』1982 . p. 19,

『지금 선대 임금께서 바다 가운데 큰 龍이 되시고 유신도 天神이 되어 두 분 성인의 마음이 합하매 이같이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寶物을 내어 나를 시켜 바치는 것이외다.』

이상에서와 같이 文武王의 護國信仰은 용에 관한 신앙적 요소가 사찰조영에 깊이 관계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찰 내부인 金堂 아래에 용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용과 護國信仰과 佛教信仰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佛力으로 나라를 지키자는 순수한 불교의 숭배를 넘어 民俗과의 습합으로 이어짐을 文武王과 호국사찰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신라 조각사를 통해 볼 때 龍信仰은 앞에서 언급한 사실이외에도 王陵과 탑비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29대 무열왕릉비의 이수에는 龍으로(도판 17) 조각되었고 신라 말기 禪宗의 도입으로 출현한 부도의 탑비, 비좌, 이수도 거의 용으로 장식되어 있음을 또한 주목할 사실이다. 따라서 感恩寺는 문무왕의 龍신앙과 호국신앙이 잘 표출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塔이라 함은 원래 釋迦牟尼의 무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塔의 의미상에서 佛教의 원래의 의미는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³²⁾ 이러한 것이 불교수용 이후 불교의 발전과 쇠퇴의 오랜 세월을 두고 의미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신라사찰에 건립된 일부 탑은 석가모니의 상징적 무덤의 의미를 떠나 황룡사목탑처럼 護國思想과 왕권강화, 민속신앙의 의미를 띄고 된 것이다.

이처럼 민속적 土着信仰의 의미를 내포하는 있는 탑과의 존재가 그리 어렵지 않게 發見되고 있다. 탑의 건립은 작은 의미에서는 자신의 願을 비는 목적에서 넓게는 국가의 守護를 비는 호국적인 의미로서 건축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감은사의 쌍탑 건립과 水路로 연결한 금당의 특이한 구조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호국적 이념이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32) 다카다오사무 著 이숙희 『佛像의 誕生』, 예경출판사, 1995 김희경, 앞의책

VII. 新羅의 西岳

1. 仙桃山

仙桃山은 新羅의 초기 五岳가운데 西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鎮山³³⁾이라고 한다.(도판 4참조)이곳 西岳은 東岳과 무관치 않은³⁴⁾ 신령스런 곳으로 新羅人들에게는 정신적 故鄉이다. 山 높이는 380m로 新羅 26대 眞平王15(593)에는 西兄山城(도판 18) 을 쌓았고 이어 30대 文武王이 또다시 축조하는 등 이 山은 新羅의 國防에도 소중한 산이었다. 산꼭대기에는 높이 10m가 넘는 慶州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阿彌陀三尊像이 새겨져 있다.(도판 19·20) 그리고 西岳을 西述, 西薦, 西兄이라고도 칭하는데 그 유래를 살펴보면, 중국의 서악인 崑崙山³⁵⁾ (도판 21) 女仙 즉 西王母³⁶⁾의 千年盤桃에서 따와서 선도산 이라고 했다. 그리고 신라시대

- 33) 三國遺事에 따르면 이 山은 신라건국이전부터 護國의 神母가 계시는 곳이라 한다. 신모는 원래 中國 皇帝의 딸이었는데 이름은 婆蘇이다. 일찍이 그는 神仙의 術法을 배워 新羅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았다. 아버지 皇帝는 술개의 밭에 서신을 매어 부쳤다. “술개가 머무는 곳을 따라 짐을 삼아라.” 사소는 서신을 보고 술개를 놓아 보내니 仙桃山으로 날아가서 멈추었으므로 그곳에서 地仙이되었다. 그래서 이 山을 西薦山이라고 불렀다. 신모는 이산에 웅거하며 나라를 鎮護하였는데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나라가 건립된 이래로 늘 三祀의 하나로 했고 그 차례도 望祭의 위에 있었다. 또한 三國史記 권 5 感通才七仙桃山 聖母 善佛寺 편에는 고대 母系中心사회의 영향으로 여성숭배의 길은 영향을 보여주는 듯하다. 여신의 이름은 〈婆蘇〉는 무리의 古語로서 山, 岳, 峰, 嶺 등을 뜻하는 소리, 수리, 술, 솟, 등의 音寫이다. 따라서 높은 신성들을 의미한다. 결국은 하늘의 祭祀를 통해 지상의 神仙이되어 世祀를 관장했다는 주제가 이 說話의 主가 된다. 특히 景德王때에는 이 聖母를 대왕으로 봉했다고 한다. 한 때 경덕왕이 매사냥을 좋아해서 선도산에 왔는데 아끼던 매를 잃었다고 한다. 그래서 신모에게 기도를 하여 “매를 찾으면 爵을 봉해드리겠다” 했더니 곧 매가 돌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王은 신모를 大王으로 봉했다는 기록이 있다.(신라오악연구, 앞의 책 p. 136)
- 34) 이곳 西岳은 西方淨土를 상징하며 능선을 따라 그 중심에는 文武王의 父王인 太宗武烈王陵과 王家들의 무덤이 있어 新羅의 東·西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 35) 崑崙山은 天堂과 地獄을 말한다. 中國의 곤륜산은 天으로 통하는 神이며 바로 지옥의 산이다. 곤륜은 고대 한어에서 하늘과 높고 크다는 어미를 가지고 있으며, 곤륜산의 진산은 바로 泰山이다. 즉 그곳에는 上帝와 여러 神들이 살고 있는 도읍지다.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곤륜산은 넓이가 1만리에 높이가 1만1천리다. 신령스런 生物들이 자라며 성인과 성인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다. 오색구름이 나오고 오색 물이 흐른다. 그 샘은 남쪽으로 흘러 中國으로 들어가니 이름 하여 황하라고 한다. 옛 神話속에서 곤륜산은 황제·상제의 女神인 西王母가 기거하는 神靈스런 山이다.
- 36) 西王母는 道教의 神이다. 그는 中國 古代神話 속에서 기이하면서도 극히 중요한 女神이다. 그녀는 인류를 창조하기도 하고 혼인과 生殖의 神이기도 하다. 동시에 그 여신은 生命의 神과 죽음의 神이기도 하다. 서왕모의 궁전은 崑崙山 꼭대기에 있으며 그는 절세미녀로 알려져 있다. 그곳은 천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人間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宮殿 왼쪽에는 瑤池라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懸水, 그 밑에는 弱水라는 강이 흐르는데, 수십 미터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친다. 머리에는 화려한 冠을 쓰고 있으며, 금빛 나는 비단옷에 鳳凰을 수놓은 가죽신을 신고 있다. 『山海經』에는 人間과 비슷하지만 표범의 꼬리와 호랑이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서왕모는 長生을 담당하는 蟠桃(신성한 복숭아)의 소유자이며 많은 神仙들이 이 불가사이한 열매덕분에 神仙이 되기도한다. 따라서 서왕모는 神仙들의 우두머리다. 진한의 武帝

에는 小祀에 모시던 靈山으로 이 산의 산신은 서술 神母 또는 西鵞山 神母 仙桃聖母³⁷⁾라 한다. 서술 신모를 나라를 鎮祐하는 護國의 神으로 신라 삼사의 하나인 소사로 제사하고 군 땅 여러 소사 24山岳 중 제일 위에 모셨다.(도판 22) 바로 이분이 신라 시조 朴赫居世를 낳은 聖母다. 그래서 박혁거세는 이 山岳에서 서술성모 몸에서 誕生했다고 전하는 곳이다.³⁸⁾ 즉 五岳같은 다른 山에는 모두 神君이 있어 男神들이었는데, 유독 이 산에만 女神의 祠堂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원류를 道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이 산 능선을 따라가면 대형 王陵(도판 23)을 비롯 크고 작은 고분 1백 여기나 있어 전체가 하나의 極樂으로 불려지고 있다.³⁹⁾

2. 西方淨土

신라인들은 仙桃山을 西方淨土 즉, 極樂世界로 숭상하면서 당시 貴族들과 王族들은 이곳에 묻히기를 염원했던 것 같다. 이유는 이곳이 極樂世界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신라건국 이전부터 이 산은 神靈한 곳이었고 땅의 神이 함께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즉 極樂淨土로 極樂往生을 念願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곳에는 文武王의 父王인 太宗家の 묘역과(도판 24) 阿彌陀三尊佛,⁴⁰⁾ 그리고 王들의 무덤들이 즐비해 있고, 주변에는 흥무왕인 태대각간 金庾信 장군의 묘가 있는데, 그 일직선상에는 공교롭게도 石窟庵(도판 26)과 佛國寺(도판 27)와 皇龍寺(도판 11 참조), 大陵苑(도판 28)이 배치돼 있어 新羅의 서쪽과 동쪽은 신라인의 정신적 의식 구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극락의 상징인 阿彌陀如來⁴¹⁾가 있어 極樂의 證票가 될 수 있다. 현재 이곳 주변에는 수 백 여기에

(B.C.156-B.C.87)도 서왕모에게 不老長生을 구한 皇帝이기도 하다. 현재 서왕모 서당이 모셔진 곳은 중국 天山에 있다. 한편 지나인들은 天山을 그들의 모태이며 民族의 靈山이라고 여겨오고 있다.

37) 仙桃聖母가 西王母信仰이다. 道教의 神으로 神話속에는 달의 神으로 표현되면서 生殖의 神이다. 즉, 생명의 신과 죽음의 신이되면서 고대 중국인의 辨證觀念을 반영하고 있다.

38) 『三國遺事』, 卷 제5.

39) 姜友邦,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0, p. 141.

慶州市, 『古都慶州-신라의 얼』, 1982, p. 219.

40) 仙桃山 阿彌陀三尊 佛像은 태종무열왕계의 願佛로 조성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秦弘燮 「慶州西岳里磨崖佛의 脇侍菩薩」 『美術資料』 제6호, 1962년 12월. 文明大 「慶州西岳佛像-仙桃山 및 斗垞里磨崖佛像에 대하여」 『考古美術』 104호, 1969년 12월. 慶州市, 『古都慶州』, 1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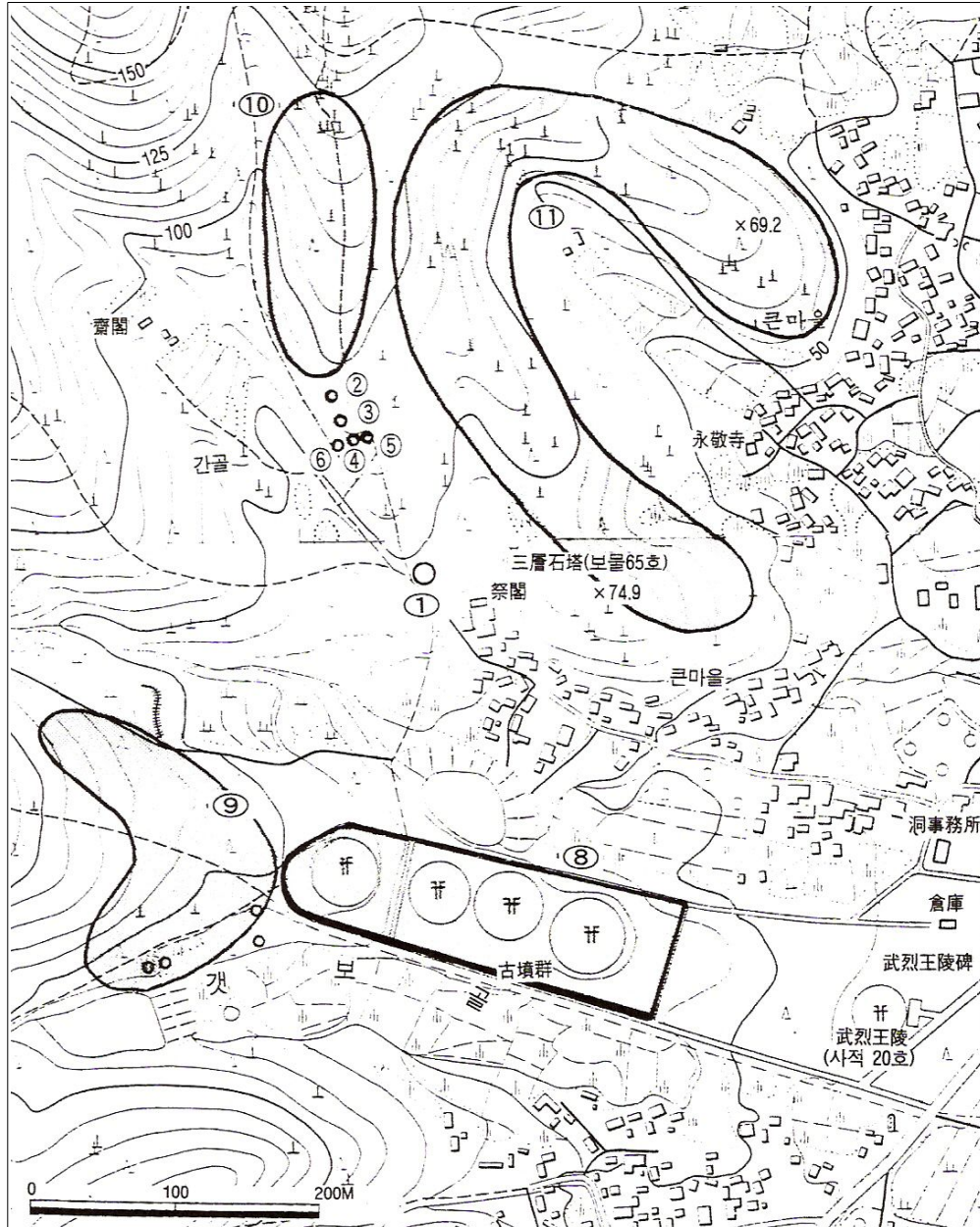
41) 이 佛像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武烈王系의 웅대한 陵에 대한, 즉 武烈王系의 願佛로 조성되었다는

달하는 크고 작은 무덤이 있으며, 그 능선 중심자락에는 太宗武烈王陵家과 그 王家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4기의 陵이 줄지어 있다.

우선 仙桃山을 이해하려면 東岳에 대한 西岳으로서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해는 東海서 뜨고 西岳으로 진다. 즉 新羅人들에게 있어 東·西에 대한 방위관념은 무의식적으로 깊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리하여 東은 삶을, 西는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다.⁴²⁾ 따라서 신라인들은 선도산을 西方極樂世界로 想定하면서 阿彌陀의 加被를 받는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東과 西의 선상에는 石窟庵을 비롯 佛國寺, 皇龍寺, 大陵苑 등이 있어 또 하나의 서로 대응되는 상징적인 문화유적들이 일직선상에 있어 주목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仙桃山을 그토록 그리워하며 죽어서 西方淨土에서 往生을 念願하면서 이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塔의 東·西배치는 文武王의 龍王信仰과 父王의 極樂往生을 念願하는 뜻에서 發願되었으리라 보고자 한다.

〈圖 25〉 선도산 전경

주장이 제기된 바가 있다. 각주 9 참조.
42) 姜友邦, 앞의 책 p. 141.



1. 암

각화 2. 진흥왕릉 3. 진지왕릉 4. 헌안왕릉 5. 문성왕릉 6. 황정묘 7. 김호묘 8. 고분군 I 9. 고분군 II
10. 고분군 III 11. 고분군 IV (경주유적지도, 1997, 국립경주박물관)

VIII. 莊嚴과 信仰的 意義

부조상이 쌍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부조상이라 함은 석탑의 표면, 즉 基壇과 塔身에 여러 像을 규범에 따라 彫刻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탑의 표면장식은 석탑의 內的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佛舍利에 대한 神聖과 이를 守護하려는 하는 外的이 합일됨으로써 부터 탑 표면에 장식하는 몇몇 類型의 浮彫像들이 등장하게 된다. 물론 시대가 흐름에 따라 匠人들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면서 부처에 대한 신앙심이 더욱 두터워졌고 이때 기단과 탑신부에는 佛·菩薩 혹은 四天王 · 仁王 · 八部衆 · 十二支 등 여러 형태로 장엄조식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도판 29) 이는 불교조각이 변성하면서 불사리 守護라는 개념이 확대 · 강화되면서 神將들도 위계 순에 따라 佛塔에 등장에 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엄조식이 쌍탑의 東 · 西배치 있어 그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하다. 자세히 관찰하면 서탑에 비해 동탑의 부조상들이 훨씬 부드럽고 세련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물론 조성당시 여러 匠人들이 佛事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의 圖上을 구현해냈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은사 사리구의 유물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대부분의 석탑들은 東塔에 비중을 두고 조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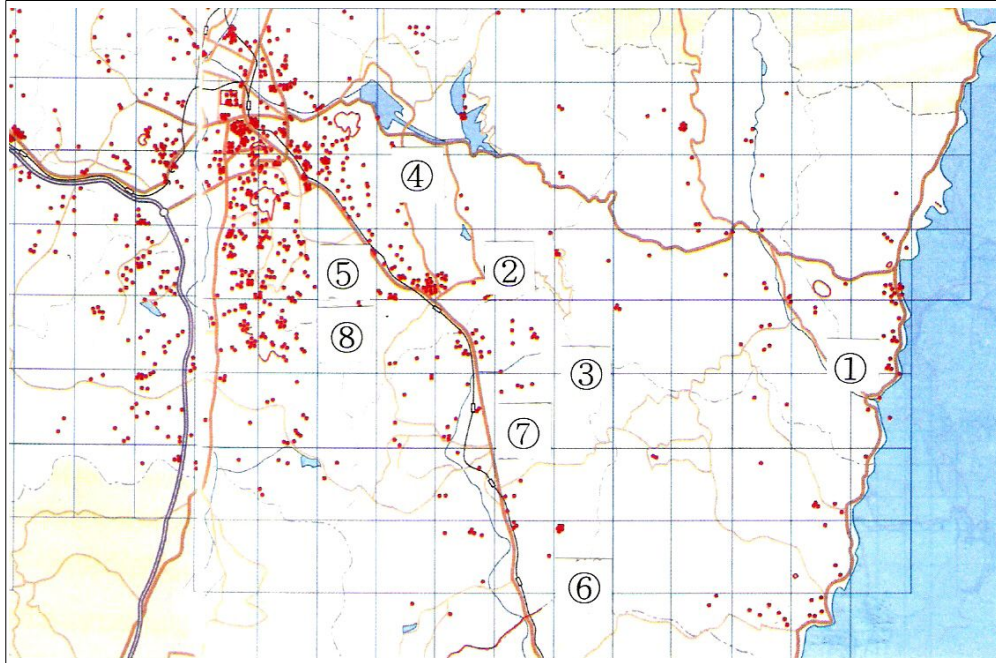
IX. 雙塔 浮彫像의 比較와 實例

浮彫像 언급에 앞서 먼저 지적돼야 할 부분은 단 탑식을 제외한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雙塔 들을 살펴보면, 방위배치란 개념이 먼저 내포된 것 같다. 이는 경주지역을 中心으로 쌍탑을 調査한 결과 이미 인식하였듯이 일부 쌍탑 들은 東·西 일직선상을 두고 造成한 예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조성당시 莊嚴도 西塔에 비해 東塔에 주안점을 둔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즉 동탑의 부조상들이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이라면, 서탑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소 딱딱하고 도식화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을 토대로 양탑의 부조상을 비교·분석기로 하겠다.

<표 1> 경주지역 쌍탑 현황<圖 30>

| 일련 번호 | 종 별 | 명 칭 | 연 대 | 주 소 | 지정일자 |
|----------|--------|------------|-------------------|--------------------------|------------|
| 1 | 국보 | 감은사지삼층석탑 | 신문왕 2년 (682년) |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1 | 1962.12.20 |
| 2 | 국보 | 불국사 다보탑석가탑 | 경덕왕 10년 (751년) | 경주시 진현동 15-1 | 1962.12.20 |
| 3 | 국보 | 장항리사지 오층석탑 | 8C 초반 |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83 | 1987.3.9 |
| 4 | 보물 | 천군리사지삼층석탑 | 8C | 경주시 천군동 549 | 1963.1.21 |
| 5 | 보물 | 남산리사지삼층석탑 | 9C | 경주시 남산동 227-2.3 | 1963.1.21 |
| 6 | 보물 | 원원사지삼층석탑 | 9C |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82및 12-3 | 2005. 4. 7 |
| 7 | 문화재자료 | 송복사지삼층석탑 | 9C |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산 33-1 | 2005. 3 |
| 8 | 비지정 | 남리사지 | 8C | 경주시 남산동 1130 | 1985.8.5 |

<표 2> 경주지역 쌍탑 분포도



1. 감은사지 3층석탑 2. 불국사 3. 장항리사지 5층석탑 4. 천군리사지 5층석탑
5. 남산리 3층석탑 6. 원원사지 3층석탑 7. 송복사지 3층석탑 8. 남리사지 3층석탑

1. 感恩寺址 3層石塔

感恩寺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최초의 雙塔 가람이자 護國의 寺刹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탑은 통일신라의 기상을 충분히 발휘되면서 당시 國力의 상징이 되었고, 여기에 三國時代 단 탑식 가람제도에서 통일 이후 등장되는 최초의 쌍탑식 가람배치의 초기 樣式을 적용한 것이 이곳 감은사이다. 이 곳 감은사 탑은 東海를 배경으로 동·서로 나란히 對稱을 이루고 있다. 대칭에 따른 의견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되었듯이 삼국통일의 주역인 문무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상징적 의미 부여와 이 불명좌사상, 원효의 일심사상, 『維摩經』 등으로 여러 주장이 집약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필자의 생각 무엇보다 교리적인 의미보다는 護國信仰과 淨土信仰 관련지어 언급하고자 한다. 어쨌든 감은사와 쌍탑 배치의 원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후 9세기

에 등장하고 있는 경주지역 쌍탑 들을 조사한 결과 동·서방위 개념을 두고 조성한 예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감은사의 석탑은 외형적인 표현장식은 없으나 내적 장식인 사리장치구를 살펴볼 때 서탑에 비해 동탑의 장식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동탑과 서탑을 해체할 때 탑 안에 안치되어 있던 사리구(도판-31,32참조)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⁴³⁾



〈圖 31〉 동탑사리기



〈圖 32〉 서탑사리기+

43) 양탑사리구를 살펴보면, 첫째 동탑의 장식관 紋樣에는 如來坐像과 花紋이 새겨진 반면에, 서탑은 忍冬唐草紋樣이 새겨져 있다는 점, 둘째 장식관 네 귀에는 네 마리의 龍이 달려져 있고, 서탑은 鳳凰이 장식돼 있다. 셋째 역시 장식관 상단에는 菩薩像과 花형 보주문 그리고 연화문이, 서탑에는 인동당초만 장식되어 있어 조성당 시동탑에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2000 인용.

2. 佛國寺

1) 다보탑 <圖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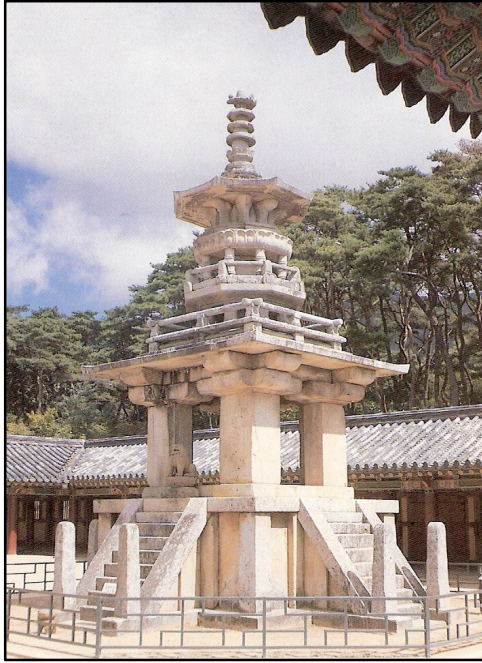
佛國寺 쌍탑 역시 東·西배치를 두고 건립하였다. 앞서 감은사 사리구를 통해 살펴본바와 같이, 釋迦塔에 비해 多寶塔이 아름답고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석탑 표면에 부조상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여성적인 아름다움이라고도 표현한다.⁴⁴⁾ 다보탑은 多寶如來 常住說法의 탑으로 二佛並坐 상으로 法華經에 의해서다. 그래서 두 탑을 法華信仰에 의해 造成되었다는 주장이다.⁴⁵⁾ 일제 때 盜掘 되어 舍利는 확인할 수 없고, 1925년과 1970대 두 차례 보수를 하였다.

2) 석가탑 <圖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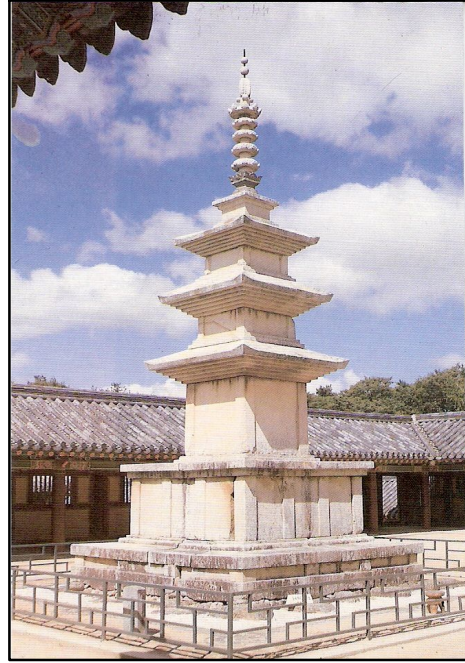
釋迦塔은 釋迦如來 常住說法塔이라고 한다. 多寶塔의 정밀한 기교에 비하면 아무런 彫刻도 없이 직선의 조립에 의해 造成돼 장엄한 느낌을 준다. 男性的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는데, 안정과 균형이 넘치고 있어 新羅石塔에 걸작이라 하겠다. 『불국사 고금역대기』에는 唐나라 匠人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記錄돼 있다. 1966 탑을 해체할 때 2층 탑신에서 탑 조성당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舍利藏置가 發見되어 주목된 바 있다. 그리고 목판 인쇄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폭 6.5m, 길이 7m의 無垢淨光 陀羅尼經(국보 제126호)이 비단에 쌓인 향과 여러 개의 주옥이 나왔다. 다보탑의 도굴로 감은사 사리구처럼 비교 할 수 없어 애석하다.

44) 권오찬, 『신라의 빛-경주시』, 글밭출판사, 1980.

45) 장충식, 『한국의 탑』, 일지사, 1989. p. 57.



〈圖 33〉 다보탑



〈圖 34〉 석가탑

3 獐項里寺址 5層 石塔

장항리 5층 석탑은 1925년 도굴된 서탑과 불상을 1932년에 복원되었다. 또한 당시 가람배치도 확실치 않다. 현 위치로 보아 앞서 언급한 감은사 3층 석탑과 佛國寺 釋迦,多寶塔 과의 배치방식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再考의 여지는 있다. 東塔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다는 학계의 조성당시의 위치와 관련해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런데 이 탑은 동탑에 비해 서탑이 훨씬 세련미를 보이고 있는데, 동탑의 경우 후대의 양식이다. 어쨌든 현 상태의 조각양식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탑신은 1개의 돌로 만들었는데, 탑신 벽면에는 문비가 새겨져 있고 그 가운데 대칭되게 도깨비문양에 문고리가 새겨져 있다. 그 주위에는 仁王像이 서로 마주 보도록 彫刻하였다. 두 탑에서 확인되고 있는 樣式的 특징을 구분하여 언급하겠다.

1) 서탑 仁王像의 도상 <圖 35>

仁王의 도상은 머리에는 高浮彫의 둥근 光背가 새겨져 있고 머리카락은 상투처럼 묶어 치켜 올려져 있다. 대좌는 격이 높은 연화대좌를 갖추고 있으며 相好는 「아」, 「음」라는 인왕 특유의 살아 움직이는 듯 강인한 표정이고, 팔은 비틀면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선의 팽팽한 근육질이 힘차 보인다. 상의는 맨몸에 어깨와 팔목에 天衣를 두르고 있으며 팔다리의 근육은 울퉁불퉁하게 표현돼 있어 사실적인 면을 초월하여 압도당하는 느낌이다. 또는 발목과 발가락의 동작도 사실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 전문 匠人에 의해 彫刻되었음이 분명하다. 동탑에 비해 서탑의 표현기법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문비에 나타난 도깨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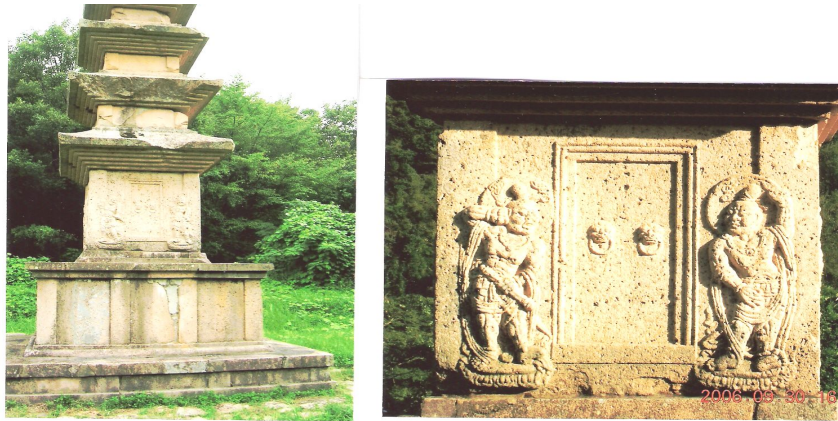
문비에 조식된 도깨비상 역시 동탑에 비해 조각기법이 뛰어나다. 耳目口鼻에서 나타난 도상역시 힘이 한 곳에 응결되면서 한편으로는 부드럽고 정형화 된 느낌이다. 입은 동탑에서 「아」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본 탑에서는 부드러운 느낌의 「음」像이다.

3) 동탑 인왕상의 도상 <圖 36>

현재 초층탑신에는 서탑의 양식과 유사한 浮彫像들이 등장하나 造形美에서는 훨씬 뒤떨어진다. 우선 각면에 조식된 인왕들은 서탑의 발달된 근육에 비해 위축되며 도식화된 느낌을 강하게 느껴진다. 특히 耳目口鼻가 인왕의 강인한 느낌은 사라지고 눈이 다소 치켜 올라간 듯 한 날카로움, 의습 또한 치졸하며 얇은 치마속에서 드러난 仁王의 근육질은 仁王으로서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도식화된 菩薩像에서 느끼는 彫刻적인 특징을 손꼽을 수 있다. 그러면서 부드럽지 못한 느낌을 자아낸다. 그리고 동탑의 인왕은 연화대좌를 타고 있는 반면 본 탑의 경우 연화좌가 아닌 雲文을 타고 있는 도상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4) 문비에 나타난 도깨비 상

東塔 문비속의 도깨비상은 서탑에 비해 다소 해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서탑의 도상은 그상이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 정형화되지 못한 채 두 눈이 위로 치켜 올리고 있고 있어 造形美가 서탑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圖 35〉 장항리사지 5층 석탑과 탑신 부조상(西塔) 상단



〈圖 36〉 장항리사지 5층 석탑과 탑신 부조상(東塔)하단

4. 千軍里 3層 石塔<圖 37>

이 탑은 일반형에 속하는 3층 석탑으로 규모나 수법으로 보아 8세기 後半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어 본고에서는 쌍탑 東·西배치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1939년 수리당시 보고에 의하면, 두 탑 모두 3층 옥신에서 한 변 24cm, 깊이 15cm의 舍利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樣式으로 그 均衡美를 잃지 않고 있다.



<圖 37> 천군리 3층 석탑

5. 南山里 3層 石塔 <圖 38>

이 탑 역시 配置方式은 東·서방향이나, 탑의 樣式은 각각 다르다. 동탑은 2층 기단에 탑신부에는 八部衆이 새겨져 있어 단아한 느낌이다. 반면 동탑은 전형적인 模塲石塔의 樣式을 따르고 있다. 역시 東·西 배열로 앞선 시기의 탑 들과 동일한 배치방식이며, 浮彫像은 서탑에 만 조각돼 있어 천군리 삼층 석탑처럼 비교하기 곤란하다. 단지 배치 형식에 따른 문제만 언급하겠다.



<圖 38>남산리 3층 석탑

6. 遠願寺址 3層 石塔

원원사는 명랑의 신인(文豆婁宗)에 법계를 이은 것이며, 신라 문무왕대 개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종파가운데 하나인 神印宗의 安惠, 郎融, 등과 金庾信, 金義元, 金述宗장군 등이 뜻을 모아 세운 호국사찰이다. 이 탑은 莊嚴과 裝飾, 舍利守護라는 모든 개념을 지니고 있는데, 조각양식을 살펴보면 윗 기단1면마다 3체식 12支神像을 彫刻하였고 초층 탑신 각 면에도 四天王像을 조각하였다. 이처럼 탑에 십이지신상을 조각한 것으로는 경주지역에서 유일한 예이다. 조형적인 특징을 살펴보겠다.

1) 동탑에 나타난 도상<圖 39>

현재 도상을 살펴보면 북쪽에서부터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등 4면에 12지상이 나타난다. 이들은 연판위에 平服차림으로 양 손은 소매자락에 집어넣은 채 이른바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拱手형태로 조용히 앉은 자세가 이채롭다. 자세도 다양하다.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 가부좌 등 다양한 모습들을 취하

고 있으며, 특히 의습은 구름을 비집고 하강하는 선녀들처럼 2층의 圓弧로 떠를 그린 옷자락표현이 사실적이다. 그리고 1층 몸돌 각 면에 1구의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는데 高 浮彫이다. 사천왕은 발로 惡鬼를 밟고 있는데, 밝힌 얼굴은「아」, 「음」 형태의 애처로운 모습들이다. 앞서 언급한 쌍탑들 과의 동일한 배치방식이 나 조형적인 모습을 볼 때 西塔에 비해 東塔의 彫刻技法이 세련돼 보이고 부드럽다.

2) 서탑에 나타난 도상

西塔의 圖像들은 동탑에 비해 세련되지 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단부의 12지 신상의 彫刻術이 동탑에 비해 뒤 떨어지며, 감각적이지 못하고 도식화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相好도 丑像 右向이고 나머지는 左向 이다. 지금까지 쌍탑에서 확인 하였듯이 대부분이 東 · 西방향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었고, 조각 또한 서탑에 비해 동탑이 훨씬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원원사 3층 석탑도 예외는 아니었다. (圖 40)



<圖 39> 원원사지 3층 동탑 (동면) 상단



<圖 40> 원원사지 3층 서탑 (동면) 상단

4. 崇福寺址 3層 石塔

승복사는 토함산 서쪽기슭에 자리잡고 있는데, 行政區域으로는 외동읍 말방리에 속한다. 현재 이 탑은 쌍탑 가람으로 배치역시 東·西방향이다. 현재 1층 塔身에는 門扉가 새겨져 있고 기단면석에는 八部神衆이 새겨져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塔 浮彫像 역시 조형적인 면을 살펴보면 西塔에 비해 東塔이 훨씬 세련된 모습이 눈에 띈다. 양탑의 조각수법을 살펴보겠다.

1) 동탑 팔부중의 도상<圖 41>

기단부 팔부중의 조각양식은 앞선 시기에 조성된 창림사3층 석탑기단에서 확인되고 있는 팔부중과의 조각기법이 유사하다. 조형미를 살펴보면, 서탑에 비해 동탑이 뛰어나다. 특히 서탑의 다리는 칠불사 神仙庵에 나타나고 있는 菩薩像 다리형태와 유사한 교각형태의 가부좌인 소위 遊戲坐형태이고, 동탑은 가부좌형태를 취하고 있어 비교된다. 창림사 3층 석탑조성에 참여한 조각가가 이곳 승복사 탑 불사에 참여한 느낌이 강하다. 역시 탑의 배치는 동·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각기술역시 뛰어나다.

2) 서탑 팔부중의 도상<圖 42>

서탑은 동탑에 비해 기법이 도식화된 느낌이 강하다. 팔부중은 조각기법을 보면 창림사와 남산리 3층 석탑의 부조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같은 계보의 조각가 참여해 불사 한 것 같다. 다리 자세는 遊戲坐이다.



<圖 41> 승복사지 3층 동탑



<圖 42> 승복사지 3층 서탑

X. 結論

지금까지 언급된 경주지역 쌍탑 동·서배치의 신앙적 관계를 요약을 통하여 맺고자 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雙塔 들은 감은사3층 석탑을 필두로 대부분이 東·西방향의 배치를 두고 조성되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浮彫像 역시 西塔에 비해 東塔의 彫刻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造形美를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쌍탑 문화는 中國에서 출발해 우리나라 사천왕사로 전파된 것은 통일신라시대이다. 그간 사찰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佛力을 통한 왕권강화와 國家를 守護하겠다는 이른바 護國思想으로 결부되면서 이후 많은 文化를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현상들이 후대에 이르러 호국적 요소가 강한 感恩寺 東·西쌍탑 建立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雙塔의 橫的配置는 삼국통일이후 東岳의 龍王信仰과 西岳의 極樂思想이 결부된 것으로 횡적 배치의 주된 目的에 대해 앞서 언급한 바가 있다. 특히 仙桃山은 西王母 信仰과 함께 신라인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여겨왔고, 또한 이곳에는 文武王 일가의 무덤과 그 정상에는 阿彌陀佛이 있어 하나의 淨土世界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기에 신라인에게 있어 東과 西에 대한 관념은 정신적 의식구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東을 삶으로 여겼고, 西를 죽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東은 하나의 시작으로 볼 수 있고, 西는 서방정토에서 還生을 염원하는 뜻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감은사(東)와 선도산(西) 중앙선상에는 石窟庵과 佛國寺, 皇龍寺, 大陵苑이 위치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塔의 주된 目的은 舍利守護란 기능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時代에 흐름에 따라 塔은 護國·追福·祈福·王權強化 등 여타신앙과 연계 되면서 國家의 平安이 라는 요소까지 습합된 사실은 記錄을 통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통일신라의 쌍탑 건립에 대한 필자의 견해로는, 海龍이 된 文武王의 龍王信仰과 淨土信仰이 결부되면서 造成된 하나의 象徵物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1. 史料

『東京雜記』

『東國輿地勝覽』

『法華經』

『三國史記』

『三國遺事』

『周易』

『海東金石苑』

『華嚴經』

2. 單行本

강영경, 1991. 『신라 전통신앙의 정치, 사회적기능연구』숙명여자대학교.

강우방, 1990. 『圓融과 調和』, 열화당.

강우방, 1995.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대원사.

경주군, 1994. 『新羅文武大王』.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研究所, 2000. 『토함산지구 불교유적 조사연구』.

慶州市史 編纂委員會, 1971. 『慶州市誌』.

고영섭, 1999. 『한국불교학사』, 연기사.

고우보, 1995. 『韓國古代佛教思想』, 동국대 출판부.

고유섭, 1975. 『한국탑과의 연구』, 동화출판공사.

김영태, 『三國時代 信仰研究』, 불광출판부.

김동화, 1976. 『불교의 호국사상』, 불교신문사 출판국.
 김상현, 1984. 『新羅社會와 佛敎』, 일조각.
 김영태, 1984 『韓國佛敎의 座標』, 보림사.
 김인희, 1982.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김정기, 1986. 『한국건축사개설』, 건축문화.
 김정희, 1998. 『신장도』, 대원사.
 김태곤, 『韓國巫俗研究』, 집문당.
 김희경, 1982. 『塔』, 열화당.
 데이비드 폰테너·최승자역, 1990.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문명대, 2000. 『토함산 석굴』, 한·언.
 문명대, 1997. 『韓國佛敎美術史』, 한국언론자료간행회.
 윤장섭, 1999. 『중국의 건축』, 서울대학출판부.
 은정주 역, 1991. 『대승기신론 소·별기』, 일지사.
 이기백, 1976. 『韓國史新論』, 一潮閣.
 이기백, 이기동, 1982. 『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장충식, 1985. 『新羅石塔의 研究』, 一志社.
 정영호, 1999. 『石塔』, 대원사.
 한국불교연구원, 1982. 『新羅의 廢寺』, 일지사.
 황수영, 1996. 『석굴암』, 열화당.
 황수영, 『신라문무대왕릉』, 신라문화원.

3. 論文

김종대, 1985. 「東洋龍의 發生과 생태」, 『전통과학』제1권1호, 한양대 전통
 과학문화연구소.
 김진환, 1985. 「龍神思想에 관한 考察」, 『동국사상』18집.
 김선주, 2000. 「吐含山地域의 歷史的 考察-古 新羅期」, 『吐含山地域 佛敎

- 遺蹟調査 研究』,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研究所.
- 김상현, 1981. 「萬波息笛說話의 形成과 意義」, 『韓國史研究』, 한국사연구회.
- 김상언, 1991. 『한국 고대가람의 배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학위논문.
- 김영옥, 2001. 『감은사 건축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진, 1984. 「신라불교의 신앙적 특수성」, 『신라종교의 신 연구』, 신라문화선양회.
- 김광태, 1993. 「新羅佛敎의 護國理念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상천, 2000. 「신라중대 쌍탑의 조성배경에 대한고찰」,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호웅, 1986. 「동해구 유적의 역사성」, 『영동문화』.
- 이강근, 2002. 『佛國寺의 木造建物과 修理,復元歷史에 대한 研究』, 2002년 추계한국불교문화학회 전국학술회의.
- 신월균, 2000. 「한국설화에 나타난 용의 이미지」, 『용, 그 신화와 문화』, 제1회 학술회의, 인화대학교 박물관.
- 이강근, 2000. 「토함산지역 불교건축 조사연구」,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 이강근, 1994.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研究」, 東國大博士學位論文.
- 이장혁, 2001. 『19세기 불화의 용 표현에 관한 고찰』,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백, 1954. 「삼국시대 불교전래와 그 사회적 성격」, 『역사학보』제6집.
- 임동권, 1980. 「韓國民俗宗教史」, 『韓國文化史大系』卷 4, 古代民族文化研究所.
- 한정희, 1981. 「韓國 古代 雙塔의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윤용복, 「인도의 용 신앙」, 『용, 그 신화와 문화』제1회 학술회의, 인하대학교.
- 윤천근, 1991. 「신라에서의 불교수용과 그 정치적인 의미에 대하여」, 『신라사상의 재조명』, 신라문화선양회.
- 전호태, 1978. 「신화의 세계와 제의」, 『한국역사입문』, 풀빛.

- 정재교, 1987. 「신라의 국가적 성장과 신궁」, 『釜大史學』.
- 조유전, 1981. 「감은사지 발굴조사 개요」, 『古文化』19.
- 홍사준, 1961. 「新羅 文武王陵碑의 發見」, 『國立博物館 美術資料』제3호.
- 서영대, 1985. 「三國史記와 원시종교」, 『역사학보』125.
- 서영대, 1983. 「한국원시종교연구사 소고」, 『한국학보』20.
- 송민구, 1985. 「한국의 옛 조형의식」, 운문당.
- 신종원, 1994. 「佛敎의 傳來와 土着化 과정」, 『한국 불교사의 재조명』, 불교시대사.
- 신종원, 1992. 「新羅 成立의 意義」, 『新羅初期 佛敎史 研究』, 民族史.
- 신종원, 1997. 「신라의 불교전래와 그 수용과정에 대한 재검토」, 『백산학보』22.
- 이기백, 1954. 「삼국시대 불교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 『역사학보』6.
- 이기백, 1983. 「新羅佛敎에서의 孝 觀念」, 『東亞研究』2.
- 이기백, 1974. 「신라오악의 성립과 의의」,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 일조각.
- 이기백, 1975. 「新羅初期佛敎와 貴族勢力」, 『진단학보』40.
- 이기백, 1978. 「황룡사와 그 창건」, 『신라사상사 연구』, 일조각.
- 안예환, 1983. 「文武王과 大王岩 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수영, 1978. 「석굴암본존 아미타여래좌상 소고」, 『고고미술』.
- 황수영, 1976. 「신라 문무왕릉 발견의 의의」, 『신동아』 3월호.
- 한정희, 1981. 「韓國 古代 雙塔의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보고서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0. 『感恩寺 東 三層石塔 舍利莊嚴』.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7. 『感恩寺發掘調査報告書』.
- 文化財管理局, 1968. 『皇龍寺 發掘報告書 I』.

-圖 版-



圖

1. 사천왕사 목탑지



圖 2. 망덕사 목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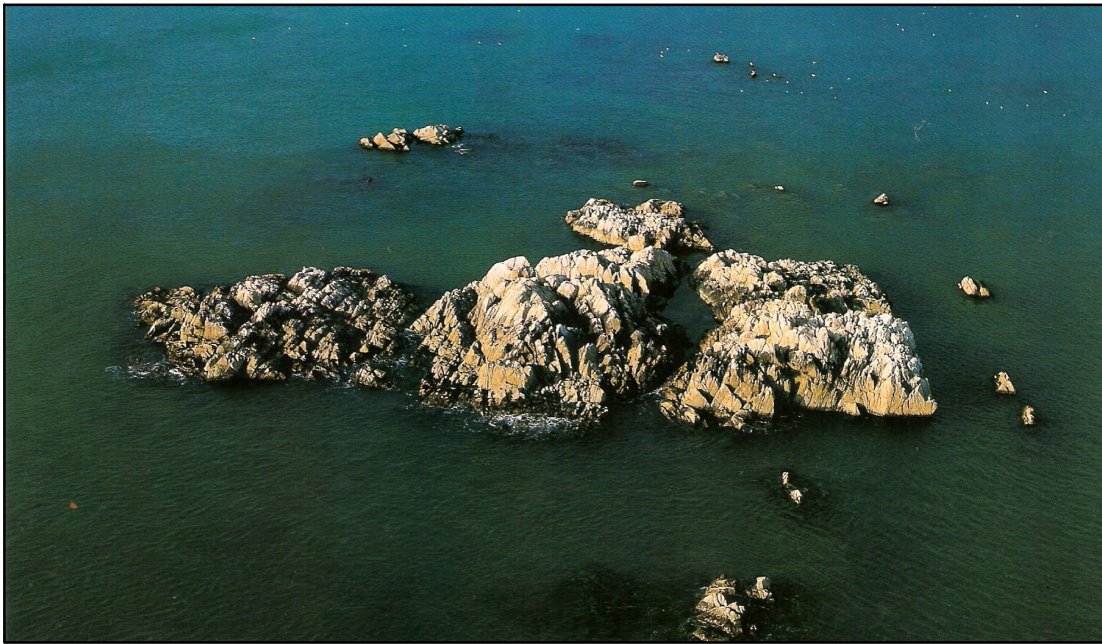


圖 3. 동해 문무대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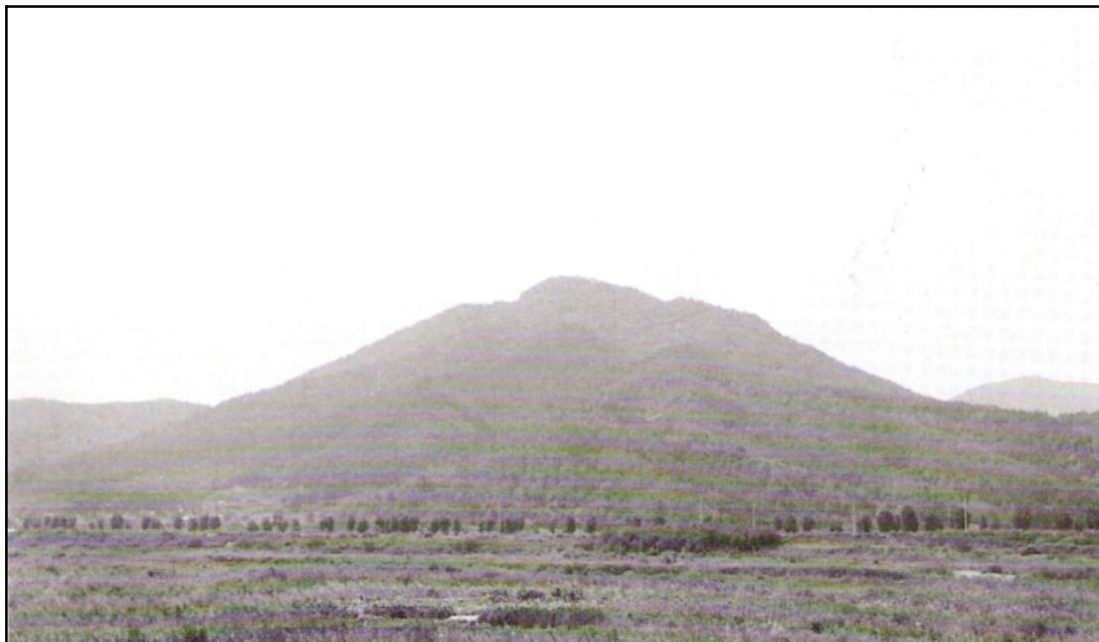


圖 4. 서악 선도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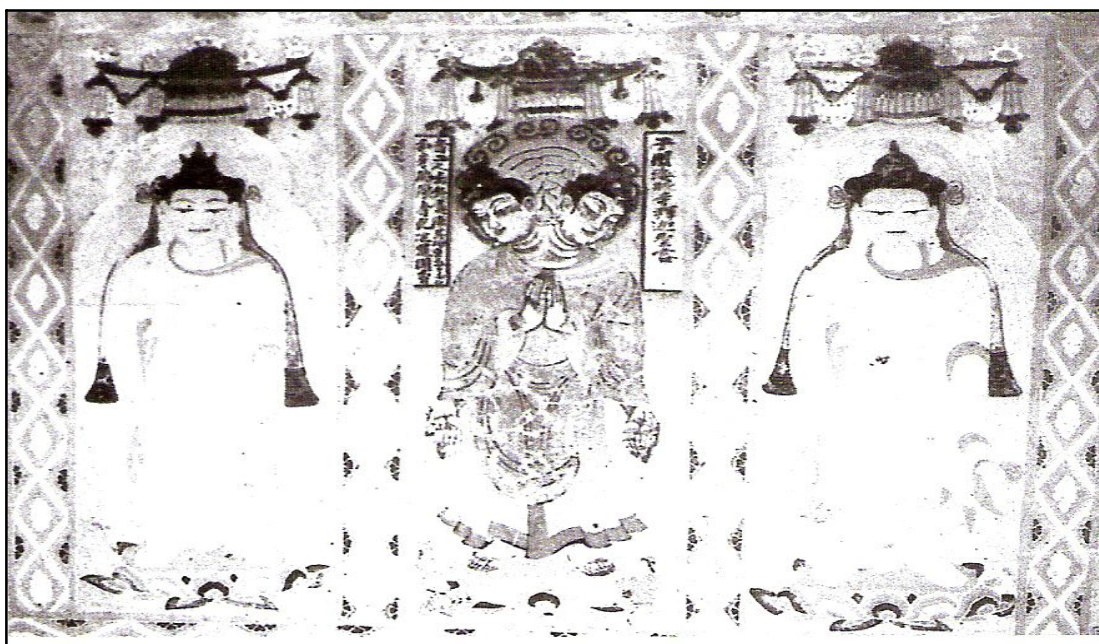


圖 5. 雙身佛 (敦煌 莫高窟 第237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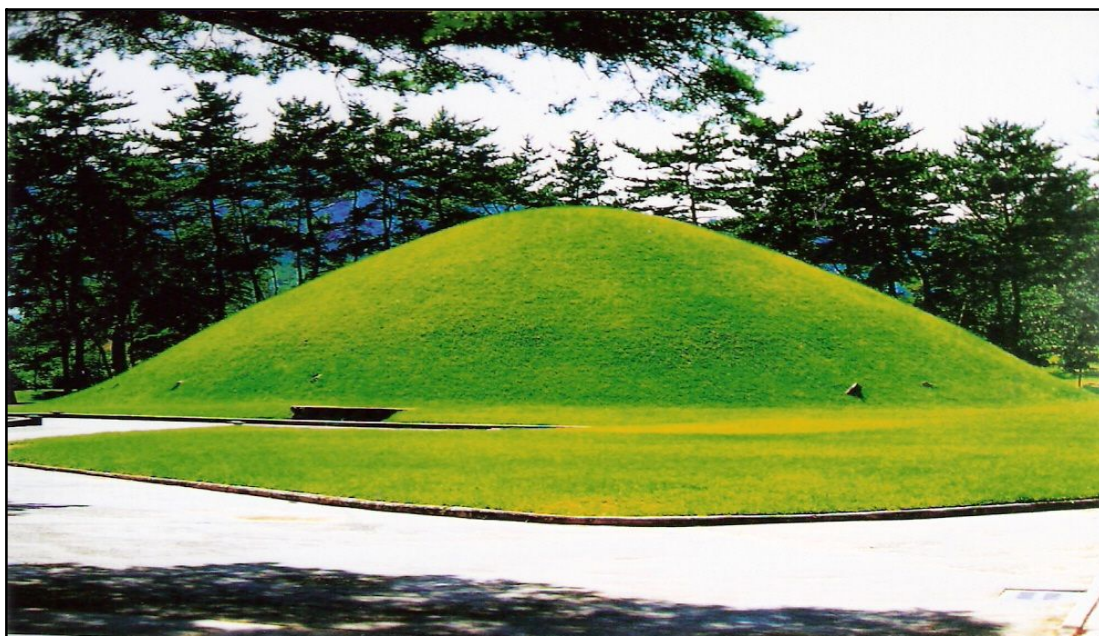


圖 6. 太宗武烈王陵



圖 7. 용두 보당



圖 8. 백자에 그린 용



圖 9. 알영비각과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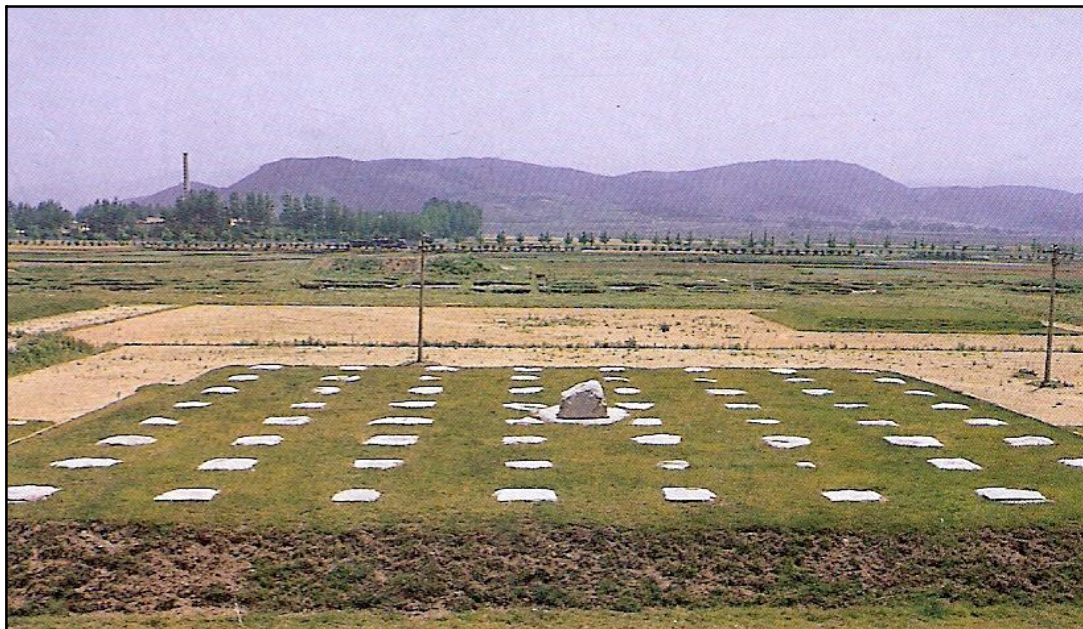


圖 10. 황룡사 9층 목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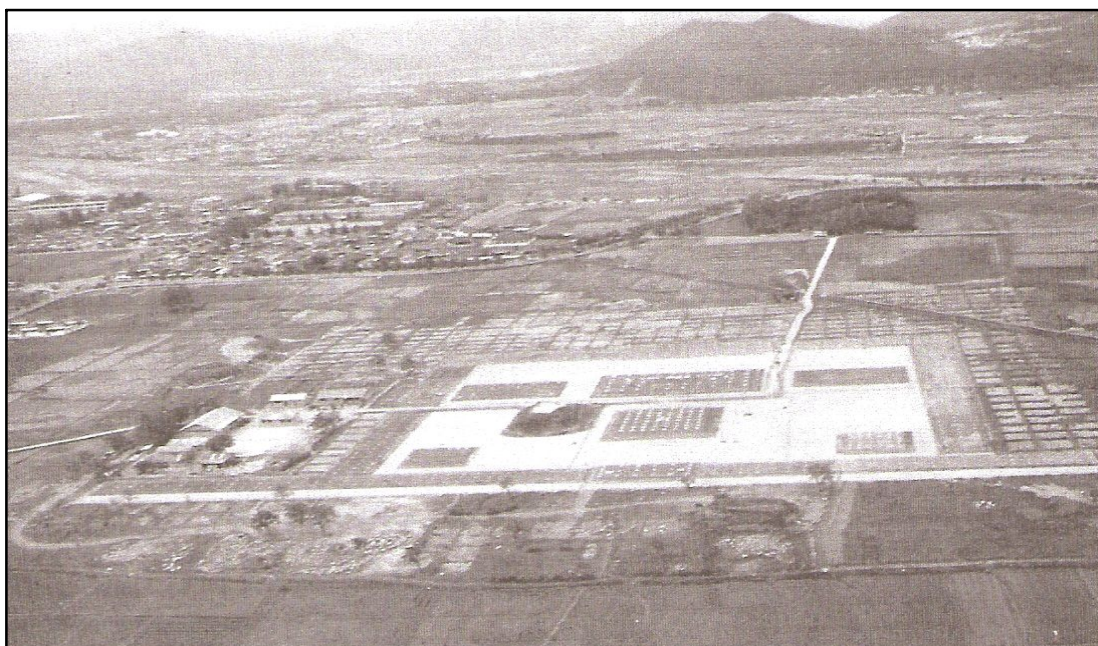


圖 11. 황룡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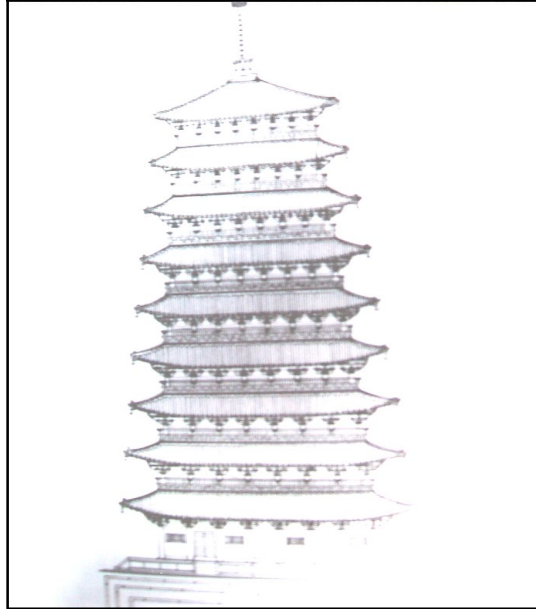


圖 12. 황룡사 9층 목탑 복원도(황룡사복원정비보고서, 1995. 경주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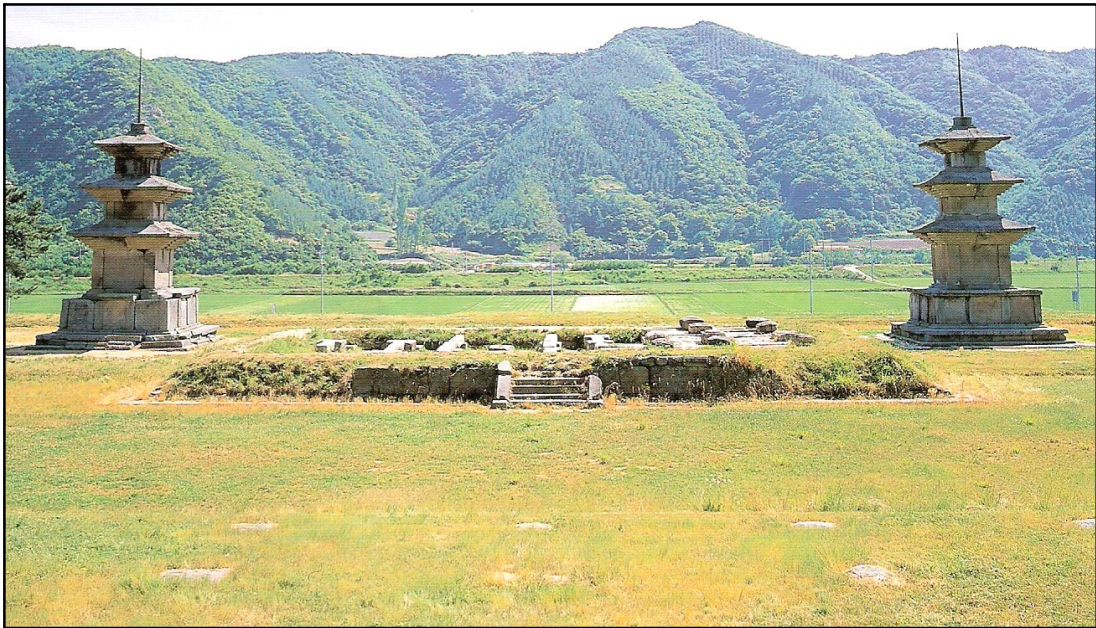


圖 13. 감은사지 전경



圖 14. 감은사지 금당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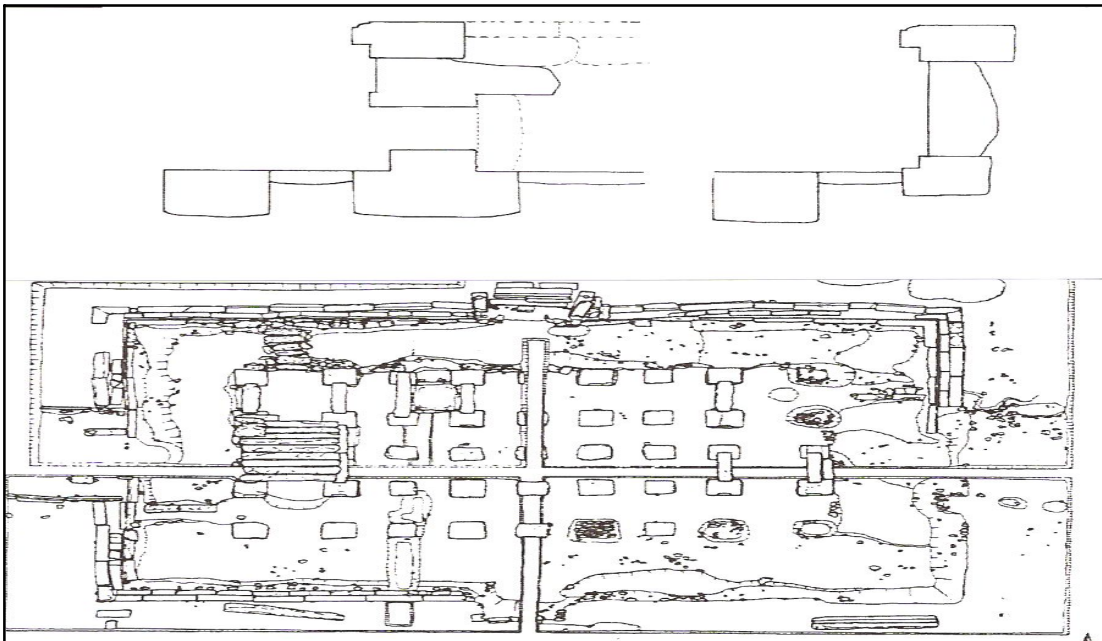


圖 15. 감은사 용혈의 구성과 유구현황(김영옥, 2001. 경주대학교 석사논문 轉載)



圖 16. 이 견 대



圖 17. 태종무열왕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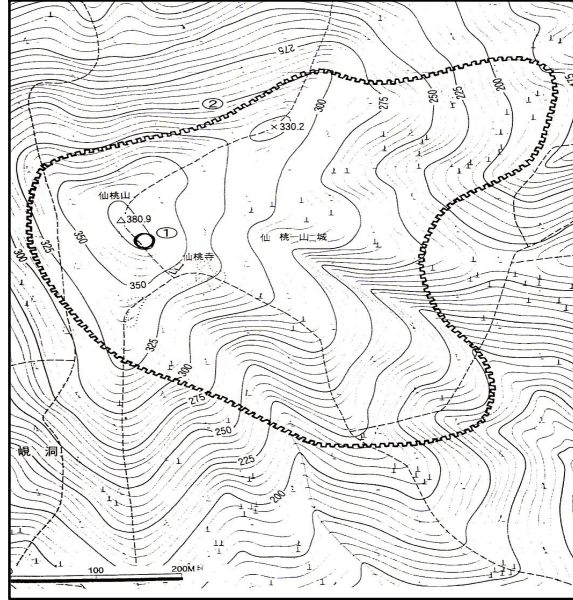


圖 18. 선도산성(경주유적지도, 1997. 국립경주박물관 轉載)



圖 19. 선도산 아미타여래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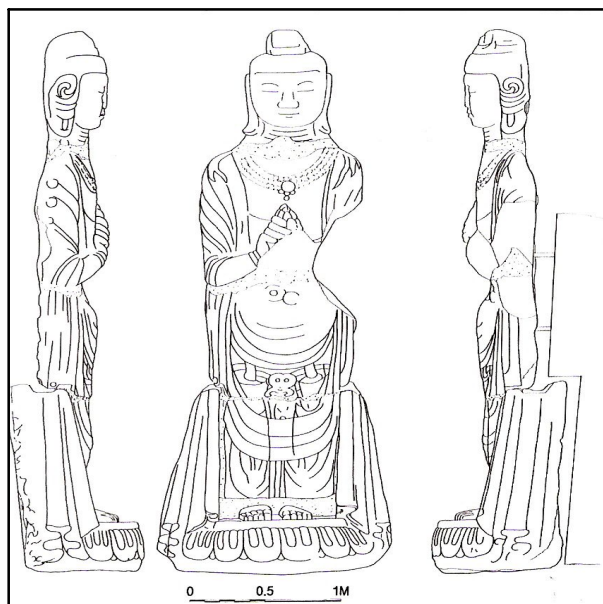


圖 20. 아미타여래입상 복원도(강우방, 1990. 열화당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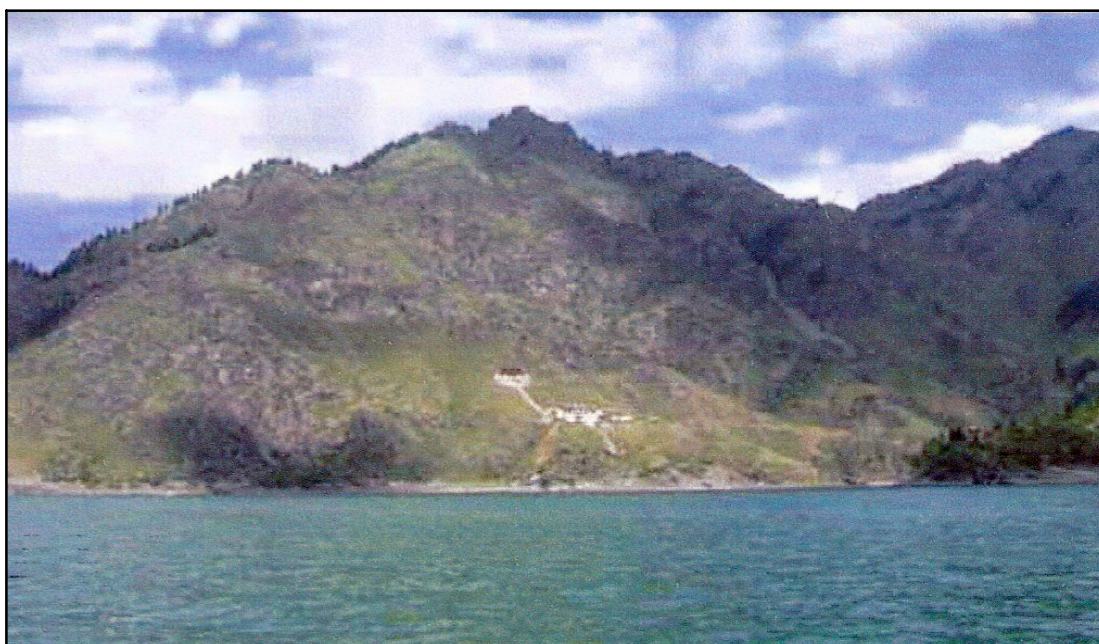


圖 21. 중국 天山 (신강성)



圖 22. 선도산 성묘 유허비



圖 23. 선도산 고분군



圖 24. 宗武烈王家 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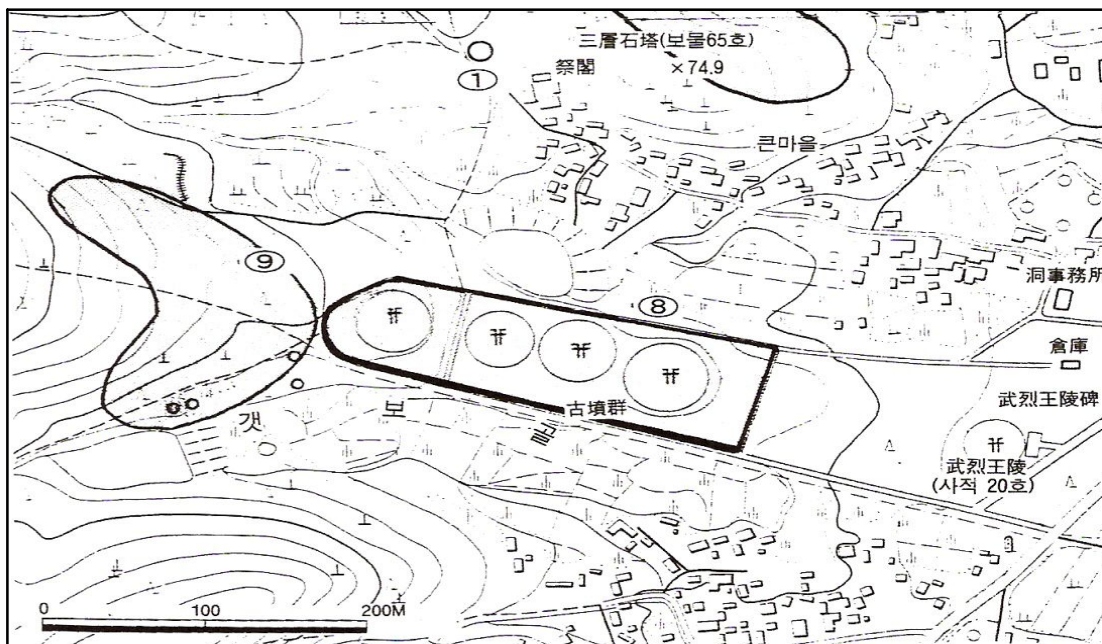


圖 25. 유적지도(경주유적지도, 1997. 국립경주박물관 轉載)



圖 26. 석굴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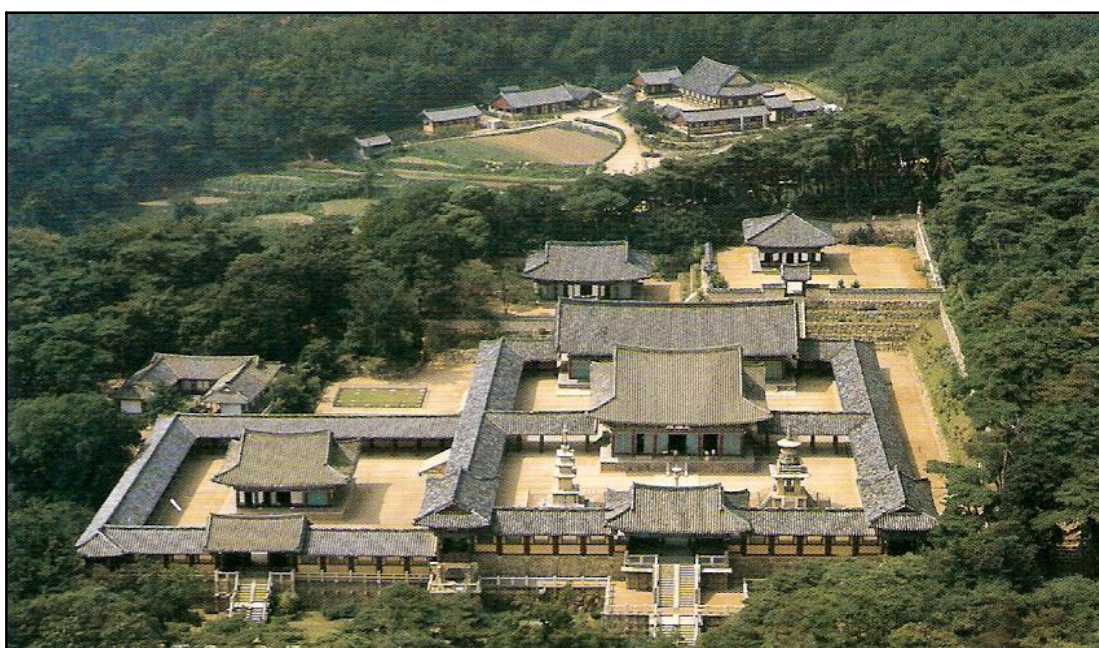


圖 27. 불국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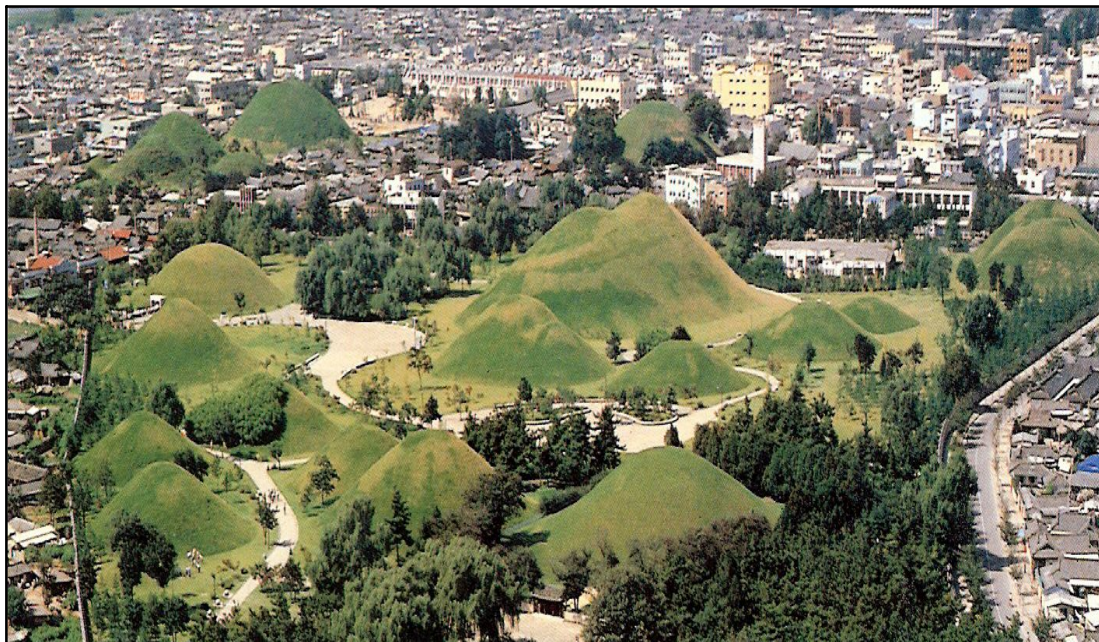


圖 28. 대릉원 전경



圖 29. 석탑 부조상의 실례(진전사지 3층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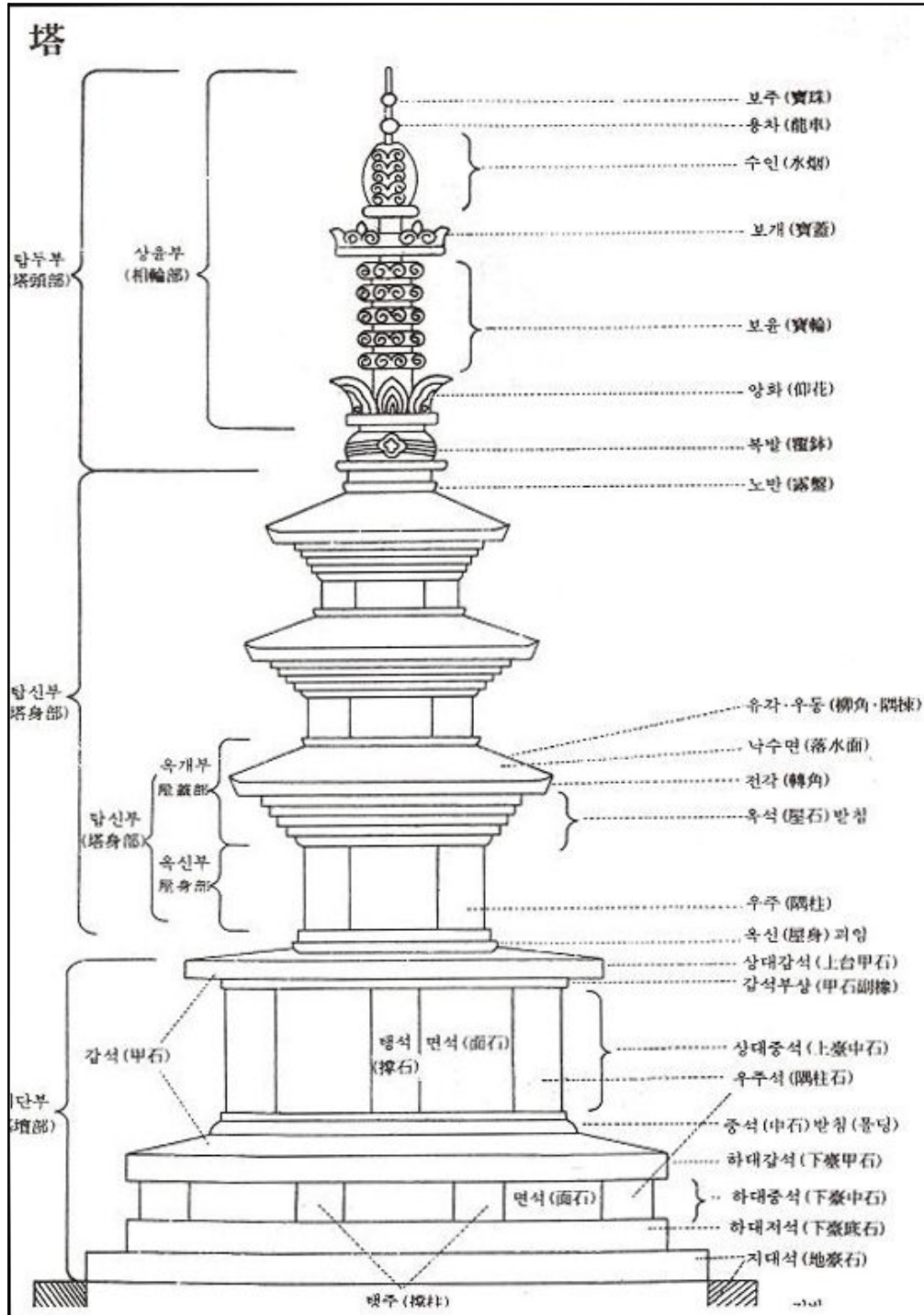


圖 30. 석탑의 명칭(장충식, 일지사. 1985)

A Research on Twin Pagodas in Unified Silla Dynasty
- Focused on the Relics in Gyeongju -

Lee, Jun-ho

Department of the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Gang-geun)

Abstract

Buddhism that originates from India spread over many countries and it was about the fourth century when it spread to Korea.

Therefore, Buddhism hav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any fields of Korean history, since it was not simply an one-dimensional introduction of a religion but a complex one that includes philosophies, cultures, ideologies and social structures. As those ideologies settle in Korea, it started to develop in various ways, and Buddhism art was at the center. Buddhism art settled in Korean mental lives so much, and enormous art works were created on that backgroun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value and character of Buddhism sculptures' aesthetic worth and shape beauty in stone pagodas and brick pagodas of the era of Three Kingdoms (BC 57 ~ AD 668) and Unified Silla Dynasty mainly in Gyeongju area.

On Korean Buddhism art, great results has been achieved by studies of many scholars including Gang Woo-bang, Mun Myeong-dae, Jang Choong-sik, Jin Hong-seop and Kim Ri-na, and the studies still continue. Although many of these about structural construction form are published as those came into spotlight, unfortunately it seems that it is insufficient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ideological background by comparing and inspecting on the horizontal dispositions and sculptural aspects of the pagodas. In that, it has been focused on religious aspects, functional and formal characteristics and relics religion until recently. Though it is crystal clear that pagodas mean objects of worship toward Buddha, it is thought that disposition problem of east or west brought a new phase. Of course, it is true that various decorations appeared as piety toward relics strengthened when Buddhism art reached the peak in Unified Silla Dynasty. However, former scholars have studied only on researches such as formation, relics religion, exterior decoration as mentioned before. Research results about religious background of the disposition have not been enough. In this thesis, wooden pagodas constructed previous period in Gyeongju area were excluded, because it was examined that those wooden pagodas have no relation with the dispositions of stone pagoda. Therefore, through raising a question, this thesis is to inspect and mention specifically what relation does shape beauty of sculpture have with disposition direction of pagodas and Dragon King Legend that is related to the Great King Munmu have with horizontal disposition by inspecting twin pagodas found in Gyeongju area.

The disposition of twin pagodas in Unified Silla Dynasty is significantly meaningful when it comes to the ideological aspect. Of course, pagodas means structures to enshrine relics. Anyway, the ultimate goal is only to enshrine Buddha's bones. After that, relics religion got to have close relation with Doctham Ideology including protecting the nation, protecting the law, blessing the dead and wishing fortune. To see in this context, I suppose the possibility that Gamyeonsa twin pagodas that were constructed with standard of East Sea may be connected to nation protection ideology of the Great King Munmu who became Dragon protecting the nation. On the premise of relics religion, at first, horizontal dispositions of pagodas felt as connected to nation protection ideology of the Great King Munmu who

became Dragon in East Sea. Next, Dabo and Buddha's position are actively described as construction formation. However, I'd like to focus on the former. Then, how should it be solved about the background constructed toward the west? Among five holy mountains, one in the west was Mountain Seondo, which had been considered as holy before foundation of Silla and as a place where god of the ground lives. Also, it, as the land of Perfect Bliss, was considered as a place to hope for rebirth in paradise. So, there are so many tumuluses of kings and graves of the big family of the heir and it also has Seondoseongmo legend and grave of General Kim Yu-shin, Taedaegakgan, Heungmu King. Therefore the north of Silla have significant meaning. Also, to see closely the sculptures on the pagodas, it can be felt that unsplit pagodas are much more sophisticated than the west pagodas. Though it is a jump of logic, I judge that horizontal dispositions of the pagodas have deep connection to formative characteristics, meaning of the paradise, nation protection ideology of the Great King Munmu mentioned above.